

## HUFES



**AMBASSADOR GOLDBERG  
ENCOURAGES STUDENTS  
TO APPROACH  
THEIR STUDIES AND CAREERS  
WITH A GLOBAL MINDSET**

## Cover Story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타운홀미팅

## Inside HUFES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로스쿨 평가 '인중'

## Global Issues

Chat GPT가  
바꿀 세상

## HUFES Topic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 세계가 원하는 경쟁력, HUFS에서 JUMP!



전세계 다양한 언어 문화 콘텐츠와 첨단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이채원(네덜란드어 22)

조나단 윌비(정치외교 20)

김동준(경영 21)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Global HUFS 2023 SUMMER Vol. 119

###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타운홀미팅
- 04 **Special Theme** 한국외대 2024학년도 신설학부
- 08 **Theme Interview** 가장 '외대'다운 융합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상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 12 **HUFS Interview** 세계화 시대의 인재로 거듭나려면 - 개교 69주년 HUFS AWARD 수상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국제통상 65  
살아갈 지혜, 나누는 용기 -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김세원 한국외대 여성동문회 명예회장·프랑스어 63  
모두가 빛을 발할 수 있길 - 발달장애인 돕는 특별한 편딩 진행  
한국외대 토리플리 표지수 스칸디나비아어 18 / 조예나 노어 18 / 오수민 브라질학 21 / 윤민웅 중국외교통상 17
- 18 **Inside HUFS**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로스쿨 평가 '인중'  
전학선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임현철 학사지원팀·학생지도센터 팀장
- 22 **Global Memoirs** 나를 위한 특별한 도전 - 'Campus Asia' 교환학생 참가 후기 이해민 차이나데이터큐레이션 20
- 24 **I am HUFSan** 지금의 생협이 있기까지를 말하다  
정진성 글로벌캠퍼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영어 84
- 26 **Global Issues** Chat GPT가 바꿀 세상 전병환 컴퓨터공학부 교수

### HUFS NEWS

- 30 **HUFS Topics** 개교 69주년 기념식 및 HUFS AWARD 시상식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 34 **HUFS Today**
- 38 **HUFS Academies**
- 42 **HUFS Professors**
- 44 **HUFS Institutes**
- 46 **HUFS Books**

### DONATION & ALUMNI

- 50 **Donation & Alumni**
- 54 **Donation list**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타운홀미팅

한국외대는 5월 12일(금)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with U.S. Ambassador Philip S. Goldberg)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The U.S.-ROK Alliance at 70'을 주제로 한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강연과 학생들과의 Q&A로 이뤄졌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 정상회담 직후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밝힌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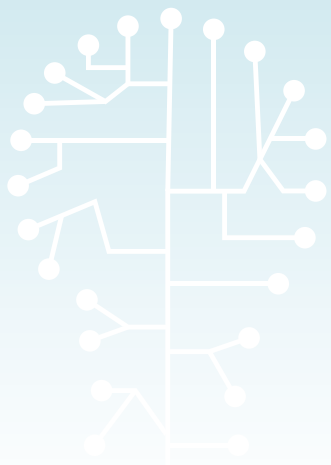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하는 연설의 장소로 한국외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외대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세계 현안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외대는 한국의 외교관 시험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학교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특강을 시작했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미 양국관계를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꾸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확대된 양국간 포괄적 동맹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외대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학업과 향후 진로에 임할 것을 권해 큰 박수를 받았다.





# 한국외대 2024학년도 신설학부

한국외대는 지난해 서울·글로벌 캠퍼스 학제 개편을 추진했고, 올해 양 캠퍼스에서 모두 첨단 분야 및 문화 산업 분야 학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에 새롭게 선보일 8개 신설학부를 소개한다.



## Language & AI융합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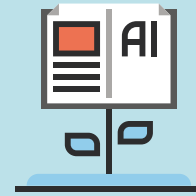
### Ⅰ 교육목표

Language & AI융합학부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언어 자원의 과학적 활용이 가능한 AI 전문 개발 인재 양성 ▲텍스트·음성 등 언어 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자동 통번역, 외국어교육 SW 등 AI 기술의 실용화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AI 비서, 지능형 인간-기계 인터랙션 등 미래 혁신 응용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 Ⅱ 기대효과

서울캠퍼스에 신설되는 Language & AI융합학부는 우리 대학의 강점인 언어학을 공학과 융합한 첨단학부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언어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급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혁신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내 언어 데이터 처리 및 AI 관련 보편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인문계와 자연계를 포괄한 모든 학과 학생들에게 이중전공을 통해 첨단 학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데이터센터, 언어공학연구소 등 학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대학이 보유한 한국어 및 45개 외국어 언어 자원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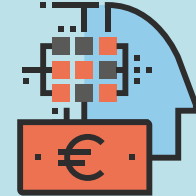
### Ⅰ 교육목표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는 사회과학에 대한 전문적 배경 지식과 빅데이터, AI 활용 능력을 접목해 사회과학 기반의 데이터 과학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외국어 능력과 사회과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디지털 혁신 인재 ▲대용량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실무 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 Ⅱ 기대효과

Social Science & AI 분야에 대한 독립적 학부가 설립되고 이 분야에 대한 이중전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상당수 학과(어문계열,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은 빅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이중전공 및 부전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Social Science & AI 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이 설계된 AI융합대학이 빅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보편 교육을 실시하여 외대생 전체에 대한 첨단 학문 분야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Finance & AI융합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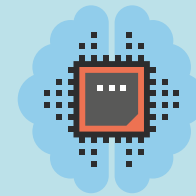
### Ⅰ 교육목표

Finance & AI융합학부의 교육 목표는 ▲금융과 AI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견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 ▲금융과 외국어 및 지역학 관련 지식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ESG 평가 전문 인재 양성이다. 글로벌 Finance &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융 및 ESG 교육, 빅데이터 분석 및 AI 교육, 글로벌 외국어·지역학 교육을 3대 교육 분야로 선택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Ⅱ 기대효과

Finance & AI융합학부의 경우 핀테크와 ESG 금융 분야를 포함하는데, 그중 핀테크 분야는 국제금융학과 및 유관학과를 결합해 그동안 제공하기 어려웠던 융합 분야인 핀테크 전공에 대한 첨단 분야 전공을 신설한다. ESG 금융 분야는 경영, 금융에 데이터사이언스 및 외국어·지역학 분야를 연계해 지역별·산업별·문화권별 특성에 따른 ESG 관련 평가, 대응, 정책 및 투자 방식에 대한 융합 전공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어 및 지역학 분야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발전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AI융합대학 내 다른 AI 기반의 융합 전공과 기초 공통 교육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 AI데이터융합학부



### Ⅰ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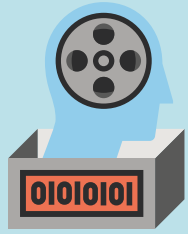
AI데이터융합학부의 교육목표는 AI와 데이터 기술에 대한 견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를 배출하는 것으로 ▲AI와 데이터 기술의 기초, AI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AI 윤리 및 철학 등 핵심 기초 교육과정 ▲AI 기반 SW공학, 사물 인터넷을 위한 AI, AI 정보 보안, 캡스톤 설계 등 AI데이터융합 심화 교육과정 ▲PBL(Project Based Learning) 위주의 융합 교육으로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경험함으로써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 Ⅱ 기대효과

AI데이터융합학부는 글로벌캠퍼스가 보유한 통계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GBT, 국제금융 등 다양한 전공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 및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도메인 응용력을 겸비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AI융합대학 내 기초 핵심 교육 영역을 개발하고 표준화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각각 특화 개설되는 AI 융합 분야 외 다양한 전공 분야의 도메인 데이터와 AI를 융합하는 'AI+X형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학부



### Ⅰ 교육목표

디지털콘텐츠학부는 ▲문화와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외국어 역량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세계 시민 사회의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자율적 인재 양성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선도할 창조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Ⅰ 기대효과

문화와 테크놀로지,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콘텐츠학부를 신설하고 글로벌문화산업대학의 상호 융합적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단기간에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리딩 대학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콘텐츠학부는 전공 선택과 조합이 자율적인 모듈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 문화콘텐츠, 세계문화예술경영 등 학부 교육과 상호 작용하고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등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의 시대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창의적 사고와 전문적 역량을 갖춘 문화,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기반의 융합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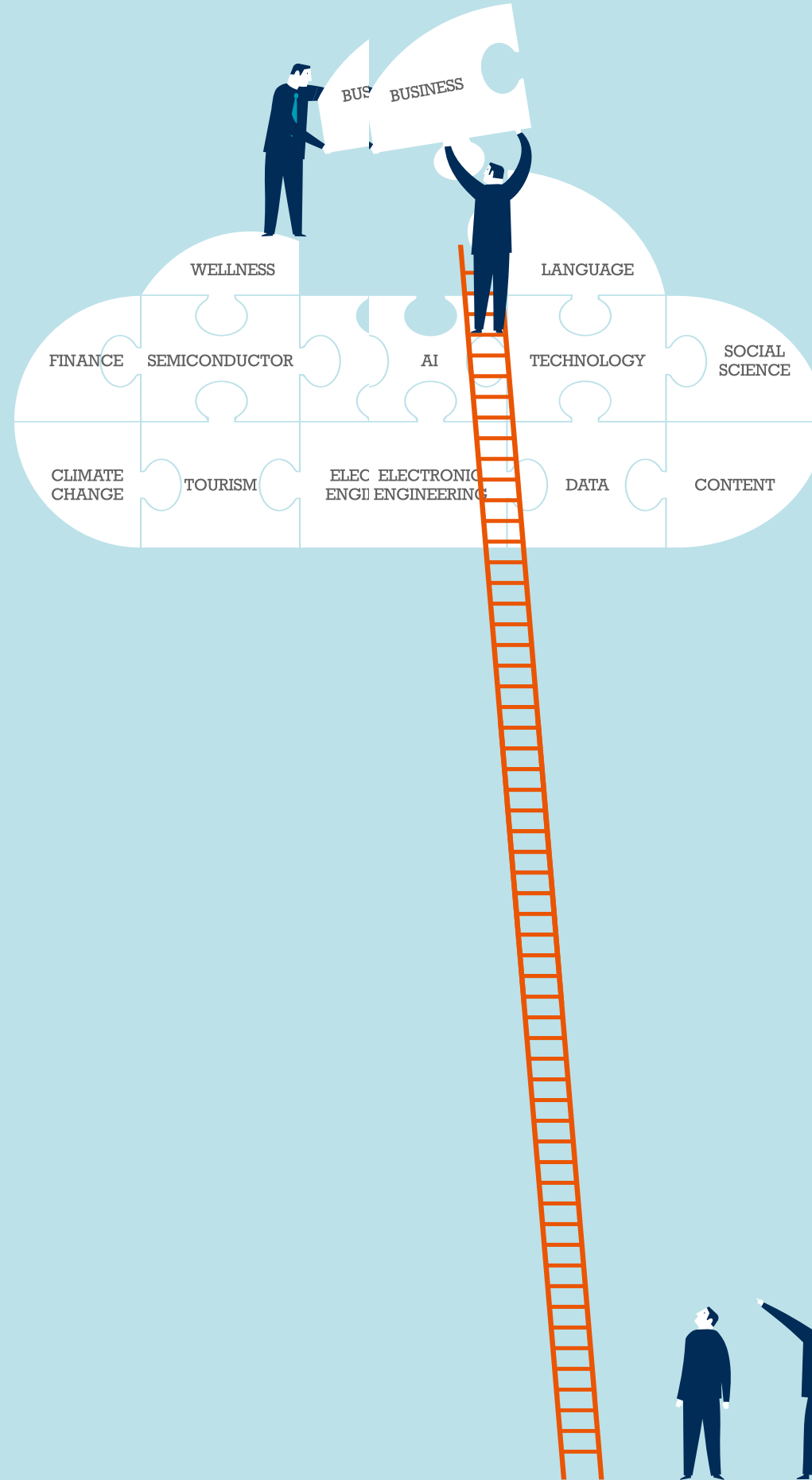


### Ⅰ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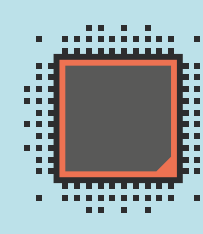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는 ▲지역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적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글로벌 관광 및 웰니스 건강 관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영어 및 제2외국어 구사력과 다문화 감수성을 보유해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진취적 역량과 다각적 진리 탐구,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을 선도하는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Ⅰ 기대효과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는 다양한 외국어 및 지역학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관광 및 MICE 분야는 수요 대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투어리즘 전공 개설을 통해 국가의 학문적 니즈에 부응하고 국가 관광 및 MICE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웰니스 건강 분야 역시 사회적 니즈가 높아지는 분야로, 웰니스 산업 특성에 맞는 전공과목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과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 지역학과 언어적 인프라를 이용해 글로벌 웰니스 전문가 양성 및 진출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다.



## 반도체전자공학부



### Ⅰ 교육목표

반도체전자공학부는 ▲합리적 사고와 국제적 감각을 지니고 첨단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반도체 및 전자 공학 전문가 양성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달을 선도하기 위한 창의적 기술 인재 양성과 국제화 역량과 인문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Ⅰ 기대효과

우리 대학 반도체전자공학부는 타 대학과 차별화하여 전공과목의 질적 제고와 실험 실습 교과목 강화를 통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용적 교육을 통해 판교, 성남, 용인의 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근접한 캠퍼스의 위치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체 인력 수요 대응 및 취업 지원 효과 또한 기대된다.

## 기후변화융합학부



### Ⅰ 교육목표

기후변화융합학부는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에서 ▲온실가스 측정 및 분석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효율적 에너지 시스템 관리 ▲기후 변화 정책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다가올 기후 변화 산업과 연구를 선도할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과학적 소양과 자연과학·공학과와의 융복합적 교육을 통해 과학 및 정책을 포함한 미래의 기후 변화 관련 업무를 국제 사회에서 선도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융합 인재를 배출할 것이다.

### Ⅰ 기대효과

기후변화융합학부는 기후 변화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경제학적 지식과 함께 AI에 대한 전문지식, 국제지역학 및 외국어 구사력을 갖춘 융합 인재를 교육양성함으로써 과학 및 정책을 포함한 기후 변화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가 될 것이다. 우리 대학 자연과학 분야 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과학 교육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과학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 국가 선도적 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또한 극지연구소, 녹색기후기금(GCF), 국립기상과학원 내 기후연구부 등 국내외 유관 기관과 연구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외대는 지난해와 올해 언어 관련 학과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서울·글로벌 캠퍼스 학제 개편을 완료했다. 학제 개편에 이어 양 캠퍼스에는 첨단 분야 및 문화 산업 분야의 신설학과가 설립된다. 김광호 기획조정처장이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롭게 비상하는 외대의 노력을 들려주었다.

## 가장 ‘외대’다운

## 융합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상

김광호 기획조정처장

팬데믹 이후 앞당겨진 초연결 탈경계 시대, 학령 인구 감소 등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고등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와 대학의 자구적이고 획기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의 산업계 수요가 증가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한국외대는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 모멘텀을 만들어 장기적 발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공을 신설해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 학과 구조 재설계

현재 우리 대학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고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학 전체적으로 융복합 혁신 교육과정 중심의 학사 구조 재설계를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김광호 처장은 학과 신설은 우리 대학의 중장기적 목표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언어 관련 학과 구조 조정에 이어 올해 서울과 글로벌 양 캠퍼스에서 모두 첨단 분야 및 문화 산업 분야 신설학과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중장기적 목표 아래 사회적 수요와 교육 환경 변화, 다른 대학과의 경쟁 상황 등 외부적 요인과 우리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및 캠퍼스 특성화 등 내부적 요인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대학의 비전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을 명시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학교 운영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양 캠퍼스 언어 관련 학과 투자 중복 문제 해결과 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첨단 전공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은 총장님은 지난해 취임 이후 ‘외대비전 2028’을 바탕으로 융복합 혁신 교육과정의 재설계를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추진 중인 학제 개편 및 신설학과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서울·글로벌 캠퍼스가 준비 중인 신설학과

우리 대학은 현재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다양한 학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에서는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설립을 통해 콘텐츠-관광-웰니스-스포츠 분야에 테크놀로지-비즈니스를 융합해 K-컬처와 디지털 세계를 선도할 융합형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고자 합니다. 또한 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를 반도체전자공학부로 확대·개편해 반도체 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공학적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 변화 문제에 공학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겸비해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후변화융합학부도 신설합니다.”

계속해서 김광호 처장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아우르는 AI융합대학 신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학과 신설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아우르는 ‘AI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를 신설해 양 캠퍼스의 특색에 맞게 도메인과 AI 분야를 융합하는 학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양 캠퍼스를 포괄하는 큰 우산 역할을 하는 AI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아래 글로벌캠퍼스에는 AI데이터융합학부와 Finance & AI융합학부, 서울캠퍼스에는 Language & AI융합학부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를 각각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죠. 우리 대학은 양 캠퍼스를 아우르는 AI융합대학 신설로 양 캠퍼스가 가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각각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캠퍼스 통합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양 캠퍼스에서 보편적인 AI교육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과 신설 과정 꼼꼼하게 준비해 나갈 것

김광호 처장은 올해는 학제 개편이 잘 안착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설학과와 관련해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지 등 학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시작해 기존 학과 발전 방안이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여러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학과 신설과 관련해 우리 대학이 유지해온 고유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 모델을 대학 전체에 확산시키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처는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과 신설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호 처장은 2023년은 외대의 비상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를 위해 학교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

U



# HUFS INTERVIEW

**세계화 시대의 인재로 거듭나려면**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국제통상 65

**살아갈 자혜, 나누는 용기**

**김세원** 한국외대 여성동문회 명예회장·프랑스어 63

**모두가 빛을 발할 수 있길**

**한국외대 토리폴리**

**표지수** 스칸디나비아어 18 / **조예나** 노어 18

**오수민** 브라질학 21 / **윤민웅** 중국외교통상 17



F

S





# 세계화 시대의 인재로 거듭나려면

**개교 69주년 HUFS AWARD 수상**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국제통상 65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서 지난 4월 19일(수) 열린 개교 69주년 기념식에서 국제통상학과 65학번인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가 HUFS AWARD를 수상했다. 그에게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과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다.

● **개교 69주년 기념식에서 'HUFS AWARD'를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들려주세요.**

먼저, 개교 69주년을 맞아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한국외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졸업 후 54년 만에 그동안의 성과와 이를 위한 노력을 모교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한편으론 더 많은 훌륭한 동문이 있는데,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 **현재 이끌고 계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한국인이 주인인 다국적 제약 기업'을 목표로 꾸준히 성장하는 제약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비롯해 원료 합성 기업 한국바이오켐제약, 서울대와 합작한 신약 개발 회사 유엔에스바이오, CRO(위탁연구기관) 기업 케일럽멀티랩, 전문 유통 기업 유나이티드인터팜 등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공장과 동남아 4개국에 위치한 해외 지사를 비롯해 전 세계 36개국의 해외 거래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개량 신약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우수한 개량 신약을 필두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꾸준히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로 우수한 개량 신약을 개발하는 동시에, 40여 개국에 달하는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한국인이 주인인 다국적 제약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혁신형 제약 기업과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됐으며, 포브스로부터 2년 연속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국제통상학과 재학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재학 시절에 기독교학생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ROTC 후보생 시절에 고문관 노트를 했던 기억이 나며, 저를 임관시켜준 학군단장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각납니다. 또, 무역학과 시절 한일협정 반대를 위해 학군단 후보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가했다 제적당할 위기에 놓여 많이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한일청구권을 받지 못했다면 포항제철소와 경부고속도로 및 다양한 인프라 사업 등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를 생각하면 당시에 했던 제 행동과 판단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가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는 그들을 만들고, 역사 박물관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목과 같은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문화 재단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CSR 활동에도 힘을 쏟으려 합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힘을 주고 미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예술가를 후원하는 한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기부 활동을 늘려 사회에 꾸준히 기여하는 회사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 '세계화 시대의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매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외국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언어는 세계화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와 더불어 그 나라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 소양이 있어야 진정한 세계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돈의 80%를 미국, 유럽, 이슬람, 유대계가 쥐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 살아갈 지혜, 나누는 용기

##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김세원 한국외대 여성동문회 명예회장·프랑스어 63

● 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을 결정한 계기와 소회를 들려주십시오.

오래전에 신문을 보다가 시장 노점상에서 나물 종류를 놓고 장 사하시는 할머니가 몇 년 동안 한푼 두푼 모았던 돈을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느 대학에 기부했다는 기사를 읽게 됐어요. 좀 찢렸어요. 그래도 이분보다는 내가 형편이 좀 나은듯한데 넌 뭐하는 거냐, 자문으로 시작이 됐죠. 기부를 할까? 한다면 어디에? 얼마를? 외대에 해야지, 물론. 얼마를? 천? 이천? 오천? 아냐, 오천은 과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죠.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되잖아. 될지언정 크게 잡아보자. 해서 그날부터 일역을 향해 달렸죠. 기부하겠다는 마음을 정하는 것에서 부터 돈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렸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선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명예회장님에게 외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탁월한 선택을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대를 택한 거예요. 외대와는 케미(Chemistry)가 잘 맞는다고나 할까? 여러 가지 면에서요. 올해로 방송생활 60년째인데, 전부 음악 방송이었어요.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의 지휘자, 작곡가... 아티스트들의 이름 읽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땐 외대 출신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죠. 저는 프랑스어를 전공했지만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등을 전공한 외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여성동문회장 역임 등 모교 동문회 활동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모교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여성동문회가 만들어지고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 시작이어서 자리를 잡기까지인 2007년까지 꽤 오랜 기간 회장을 맡았죠. 당시 동문회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회장직을 처음에는 재력, 시간,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막상 중책을 맡으니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먼저 터를 잘 닦아놓아야지, 그래야 훗날 후배들이 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 지금까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프랑스어과 재학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우리 학교는 음대가 없어서 겨우 피아노 한 대만 있었는데, '제1회 외대 음악회'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일본어과 최화자라는 친구와 연탄곡을 쳤어요. 그때는 치는 사람이 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아마추어여서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그리고 '불문화의 밤'이라고 해서 첫해에 우리 과 친구가 노래하고 제가 반주를 했는데 구노의 '아베마리아'였어요. 더 우스운 건 그 이듬해 '불문화의 밤'엔 치마저고리를 입고 폴 베를렌의 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지만 그때는 꽤 괜찮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십시오.

먼저, 지금까지 이렇게 큰일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역류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잘 적응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제게 무언가가 온다면 그걸 또 열심히 하면 되구요.

●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또한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화살을 두 개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화살이 없었습니다. 60년 방송생활 중 40년이 생방송이었는데, 생방송이라는 것은 오로지 화살 하나로 그때 그때 말하는 것이 즉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스튜디오 안으로 하나의 화살만을 들고 들어간 셈이죠. 그 대신 하나뿐인 화살을 정확하게 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합니다. 저는 네 가지 단어를 좌우명처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직이에요. 정직한 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중국엔 기억을 못하게 되어 버려요. (웃음) 두 번째는 신의.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유머예요. 유머는 적을 무너뜨리기도 할 정도로 힘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과 내가 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가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Birth·탄생)와 D(Death·죽음) 사이의 C(Choice·선택)이다.' 탄생과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사이,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르트르가 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무수한 유혹들이 있죠. 마약, 돈봉투 등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김세원 한국외대 여성동문회 명예회장(프랑스어 63)이 지난 4월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6월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김세원 강의실 헌정식이 개최되었다.

그는 “오래 품어온 마음을 실천했을 뿐 거창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평소 품은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자.





한국외대 토리플리는 단순 노무에 치중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 및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예술성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패션 아이템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토리플리는 현재 발달장애인의 손그림과 리사이클링 원단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 모두가 빛을 발할 수 있길

## 발달장애인 돕는 특별한 펀딩 진행

**한국외대 토리플리**  
**표지수** 스칸디나비아어 18  
**조예나** 노어 18  
**오수민** 브라질학 21  
**윤민웅** 중국외교통상 17



### ● 토리플리의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토리플리는 반년간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재능 기부 클래스를 통해 성인 장애인들의 직업적 재능을 찾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원석과도 같은 장애인 일러스트레이터 세 명을 발굴할 수 있었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도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기에 친환경 원자재를 사용해 주력 제품인 모자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매립되는 폐플라스틱 원료에 주목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들과 플라스틱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굿즈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자수 볼캡, 바다거북 그림통, 바다 리무버블 스티커를 출시했습니다.

### ● 펀딩 진행 과정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표지수** KBS-TV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 촬영 중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들을 모시고 교내에서 야의 부스를 열어 즉석 손그림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에게 ‘다홍이’ 캐릭터를 그려주며 활짝 웃는 작가님을 보는데, 커다란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발달장애인 적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토리플리의 목표였는데, 막연히 그려온 목표가 어떻게 실현될지 어렵게나마 윤곽이 보였습니다.

**조예나** 그림, 특히 동물 그림을 그릴 때 즐거워하는 디자이너들의 표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애초에 색 조합 및 삽화 모방에 뛰어난 재능과 흥미가 있는 분들이라, 캐릭터 디자인 일을 할 때만큼은 만면에 미소가 피거나 열중해서 입을 앙다물거나 등 생기 그 자체였죠. 타고난 흥미와 재능을 살려 일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수민** 저는 지난해 겨울 KBS 촬영할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수업에 참여해 디자이너들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그 자리에서 제품 디자인을 구상했는데, 그 과정이 시간도 제한되고 어려웠지만 디자이너들과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느낌이라서 더 뿌듯하고 디자이너들의 의도를 담은 하늘다람쥐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민웅** 저는 200개가 넘는 물품을 배송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포장하고 공을 들이는 작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멋있게 펀딩을 마치는 순간이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라 문제없이 최종 배송까지 마쳐야 진짜 마무리라는 걸, 그리고 그 마무리를 실수 없이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펀딩 참여율과 후원자 수, 후원 금액 등 펀딩 결과가 궁금합니다.

3월 4일~4월 15일 총 42일 동안 리사이클링 볼캡, 스마트톡, 리무버블 스티커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펀딩 참여율은 1939%를 달성했고, 233명의 후원자를 모았으며, 총 9,697,600원의 후원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토리플리 팀원들간의 좋은 팀워크와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들의 진정성 있는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상 고객을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타겟팅한 점이 많은 후원자를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집중한 덕분에 침착맨, 주호민, 옥주현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흔쾌히 저희 제품을 소개해줬습니다. 여러모로 저희의 취지와 노력, 운이 잘 맞물려 펀딩 참여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토리플리의 목표는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들과 그 영역을 더욱 넓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다’였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육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카피바라, 오목눈이와 같은 귀여운 동물을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토리플리를 브랜딩할 수 있는 캐릭터를 생성함과 동시에 관련 굿즈를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제작 및 판매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3차 ‘지구’, 4차 ‘우주’로 그 영역을 더욱 넓히고 싶습니다. 펀딩 순수익금의 경우 추후 프로젝트를 위한 활동비를 제외하고 모두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들을 위한 교육비와 성과급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표지수**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자 목표입니다. 토리플리를 시작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만의 재능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줄어든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기여해 다수의 행복성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건강한 방식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조예나** 사람과 동물을 모두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업은 사람을 위한 일을 할지언정, 그렇게 번 수익은 유기동물 구조나 자연 보호 캠페인 모금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할머니가 됐을 때쯤 제 뜻대로 환경 단체나 동물 보육원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수민** 토리플리 활동과 관련해 디자이너들이 좋아하는 창의적 활동을 진행하며 사업 분야를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토리플리의 콘텐츠 마케팅을 잘 가꾸어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바탕으로 저희 제품이 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됐으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디자인 실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민웅** 토리플리의 일원으로서 토리플리를 브랜딩하는 게 목표입니다. ‘토리플리’ 하면 로고가 생각나고, 캐릭터가 생각나고, 취지가 생각나게끔 토리플리를 멋있게 브랜딩하고 싶습니다. 2차 에피소드부터는 저희 캐릭터와 로고를 만들면서 토리플리만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케팅, 기획 쪽의 회사에 취업해 제 아이디어와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습니다.



2009년 문을 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제3주기 로스쿨 평가 결과 '인증'을 획득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원장과 학사지원팀·학생지도센터 임현철 팀장을 만나 한국외대 법전원의 경쟁력에 대해 들었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로스쿨 평가 '인증'

**전학선**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임현철** 학사지원팀·학생지도센터 팀장

###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인증' 획득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제3주기 로스쿨 평가 결과 '인증'을 획득했다. 로스쿨 평가는 5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번 제3주기는 제1주기(2012년), 제2주기(2017년)에 이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기간에 해당한다. 제3주기 평가는 전국 25개 법전원 중 9개교만 인증받은 데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우리 대학을 포함해 연세대, 한양대 등 3개교만 인증을 받은 결과라 의미가 남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원장은 이번 제3주기 인증 성공에 대해 법전원과 관련된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한다.

“법전원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에서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로스쿨 평가에 대비해 꼼꼼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평가에 맞춰 급급하게 따로 준비하는 행정이 아니라 평소 평가 기준에 맞춰 학사 행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번 제3주기 인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제1주기, 제2주기, 제3주기 모두 재평가 없이 단 한번에 인증 평가를 통과하며 법전원의 경쟁력을 입증했기에 더욱 기쁩니다. 특히 이번 제3주기에는 손에 꼽는 학교만 인증받았습니다. 이토록 좋은 결과는 법전원 교수님들과 학사지원팀, 학생지도센터 직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학선 원장은 우리 대학 법전원의 인증 평가 경쟁력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을 꼽는다. 법전원은 이론 담당 교수 15명과 실무 담당 교수 11명을 포함해 다수의 겸임교수를 보유하고 있다. 교수진은 완벽한 커리큘럼에 맞춰 성실성익껏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에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의 철저한 준비성도 전학선 원장이 높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는 입시부터 시작해서 졸업까지 모든 행정을 맡고 있다. 학사지원팀은 입학과 수업 등을 담당하고, 학생지도센터는 장학금과 학생 지도, 실무 수습 등을 담당한다.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에서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로스쿨 평가에 대비해 꼼꼼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가에 맞춰 급급하게 따로 준비하는 행정이 아니라 평소 평가 기준에 맞춰 학사 행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번 제3주기 인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우리 대학 법전원은 법조인 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커리큘럼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외교관, 공무원 등 국제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목표에 맞춰 법전원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트랙1, 트랙2, 트랙3으로 구성된다. 트랙1은 국내법의 이론과 실무 중심의 학습 과정이고, 트랙2는 국제 거래 관련 업무 및 국제 기구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국제관계법 중심의 학습 과정이다. 트랙3은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국제관계법 및 국제지역법 중심의 학습 과정이다.

법전원은 이번 제3주기 로스쿨 평가 항목 중 교육 성과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우리 대학은 학교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갖추고, 단순히 변호사 시험만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등도 배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 등을 갖춘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교육 성과와 관련해 전학선 원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교육 성과라는 건 법전원에서 어떻게 교육했는지, 교육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는 항목입니다. 우리 법전원은 외국어와 지역학에 특화된 대학으로서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8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항목입니다. 다른 법전원에는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인증 제도죠.”

커리큘럼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수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우리 대학은 개강 교수 회의, 중간 교수 회의 등을 오래전 법과대학부터 전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전원은 지상 8층, 지하 2층의 법학관에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을 비롯해 모의 법정실, 전산 교육장, 법학 전문 도서관 등을 확보하고 있다.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기숙사, 여학생 휴게실, 수유 및 육아 편의 시설과 락커룸을 갖췄다.

##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의 역할

법전원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펼친다.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가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 제1주기 평가부터 모든 행정을 도맡아오고 있는 임현철 팀장이 답한다.

“학사지원팀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모든 학사 업무를 관장합니다. 전형 절차만 해도 8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꽤 긴 기간 동안 진행하는데, 입시는 공정해야 하므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배려 대상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 여부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에 중요한 세부 항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인증 평가 항목 중에는 학사 행정의 엄정한 집행 여부도 있다. 학점을 자유

롭게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급마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급 제도를 시행하며 학업에 동기를 부여한다. 실제로 지난 학기만 해도 유급자가 나왔을 정도로 엄격한 편이다. 학생지도센터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학생들의 불편 사항, 요구 사항 등을 경청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연다. 임현철 팀장은 이 회의를 통해 학생 지도와 관련된 계획을 세운다고 귀띔한다.

“원장님, 부원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일주일간 있던 일을 공유하고 향후 일주일간 진행할 학사 행정 등을 공유합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학생 150명이 가진 작은 어려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세한 학생 지도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3회에 걸쳐 치르는 변호사 모의 시험은 우리 대학 법전원만의 자랑이다. 모의 시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분석해 방학 중 진행되는 특강 계획을 세운다. 또한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시행하던 제도를 가져온 것을 토대로 학생들은 방학 중 실무 수습을 나가게 된다.

기관과 학생을 연결하는 일도 학생지도센터의 역할이다. 교수진들이 일정 시간 학생 상담을 하는 것도 평가 항목 중 하나인데, 이 역시 학생지도센터에서 놓치지 않는 항목이다. 학생지도센터는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교수진에게 알리고 교수진은 학생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임현철 팀장은 교수진의 학생 지도 열정에 대해 자랑한다.

“법전원 교수님들은 연구나 학생 지도의 부담이 큼니다. 하지만 학생 수업 준비는 물론 모의 시험 결과에 따라 첨삭 지도를 하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실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법전원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에서 업무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꾸준함이다. 실제 우리나라 법전원 중 제3주기를 모두 단 한번에 통과한 사례는 드물다. 모든 과정을 1년 내내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 큰일이 아니지만, 급하게 배우고 채우려면 막중한 업무가 되고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현철 팀장은 커져이 쌓인 평가 지표와 자료들을 관리하는 꾸준함이 재평가 없이 단박에 인증에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라고 전한다.

“150여 개 평가 지표가 전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따로 자료들을 모아서 축적 관리를 합니다. 이 자료들은 5년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평가 지표 내용을 분석해보면 핑크가 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겁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들께 이런 부분을 상시로 알려드리고 ‘지금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메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 가면서 관리를 하니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학 법전원 학생들은 임현철 팀장에게 자랑거리다. 그는 학생 모두 훌륭한 인성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또한 교수진들과 학생들의 친밀감 높은 관계도 자랑이다. 학생들은 스스로없이 다가와 교수들에게 의논하고, 학사지원팀과 학생지도센터에 편하게 들렀다 갈 정도다.

“법전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성실히 교육 및 지도하고, 단순히 법조인 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 도움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대의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법전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민 차이나데이터커레이션 20

## 나를 위한 특별한 도전

### 아시아권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

Campus Asia는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대학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교류 프로그램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를 교류하고 하나의 안건에 대해 토론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또한 북경사범대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아시아권 학생들과 함께 발전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5개월간 학생들과 교류하며 아시아간 협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북경사범대에 파견을 갔을 때 코로나19가 심해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던 건 아쉬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아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북경 안에서 여행을 여러 번 할 수 있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기다려주는 중국 문화 덕분에 더 편하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학교 생활 이외에도 천안문, 산리툰, 티엔탄 공원, 만리장성, 왕징 소호 거리, 오도구 거리, 베이하이 등 북경의 관광지들을 많이 여행했다. 덕분에 북경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해민 학생은 'Campus Asia'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북경사범대에서 6개월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권 학생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이 경험이 앞으로 인생의 폭을 더욱 확장시켜줄 것 같다고 전했다.

### 북경사범대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추억

그러던 중 학교의 봉쇄 정책으로 11월부터 봉쇄가 시작됐다. 이 시기부터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학교 안에서 최대한 즐겁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북경에서 관광하느라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북경사범대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교류했다. 학교 안에서 중국 학생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같이 테니스를 치고,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러면서 중국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그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서관, 카페, 학교 안 벤치 등 어디서든 학생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학교의 학구적 분위기에 매료돼 나도 열심히 공부했다.

또한 유학생 사무실을 통해 버디로 매칭된 친구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언제나 나를 돕기 위해 노력해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아직 중국어가 서툰 나에게 북경사범대 친구들이 먼저 영어로 소통하려 노력해줘서 나 또한 적극적으로 학교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갈 수 있었다. 언젠가 뇌과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실험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대학원생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실험을 계기로 친해진 대학원생들과 같이 취업, 학교,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공감대도 많아서 재미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밟는 학생이 매우 많다는 사실과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본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신기했다.

그러던 중 더욱 많은 중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문학 전공 강의를 수강했다. 이 수업은 북경사범대 본과생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중국 학생들이 영어를 매우 잘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매시간 희곡에 연관된 사회 현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의 주장도 많고 내 의견도 수용해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 CAMPUS ASIA



###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다

약 5개월간의 북경에서의 유학 생활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처음 북경에 도착했을 때 중국어 실력에 자신감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회화 실력보다 내가 소통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어를 훌륭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중국 친구들과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중국어로 먼저 말을 걸고 중국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취두부, 양고기와 같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에서 수업 시간에 중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공부해도 중국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중국의 의형제, 의자매 문화, 판시(관계주의) 문화, 산채 문화 등 평소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중국의 가치관과 세습돼온 문화들을 중국인들의 삶 속에서 이해하게 됐다.



### 인생의 폭을 더욱 확장시켜주는 계기

중국에 사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과 소통하며 사람에 대한 수용력을 기를 수 있었다. 북경에는 각자의 삶의 목적을 위해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다. 이 학생들은 중국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각자만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다. 나도 처음 중국에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 친구들과 함께 솔직하게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조언해줬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가나와 대만 친구들과 학교 안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한 적이 있는데 매우 의미 있고 즐거웠던 시간이다. 서로의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각자 북경 생활에서 느끼는 소감을 말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었다. 국가와 인종의 다름을 뛰어넘어 서로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정말로 해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중국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사회와 갈등 문제에 대해 매우 상의한 의견들이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들과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교류하고, 느꼈던 이 소중한 시간이 앞으로 인생의 폭을 더욱 확장시켜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후생관은 학생 복지의 구심점으로 통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후생관의 식당, 카페 등을 관리 및 운영한다.  
글로벌캠퍼스 생협 정진성 사무국장(영어과 84)을 만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생협이 걸어온 길을 들었다.

## 지금의 생협이 있기까지를 말하다

정진성 글로벌캠퍼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영어 84

# I am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다

글로벌캠퍼스에는 후생관이 있다. 1996년에 생긴 후생관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학업 중간에 잠시 쉬어가도록 품을 내어주는 공간이다. 후생관에 위치한 식당, 카페, 맘스터치 등은 생협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다. 정진성 사무국장에게 생협이 하는 일을 물었다.

“생협은 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글로벌캠퍼스 내 복지 시설을 직영이나 위탁 운영 등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학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식당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생협이 식당 운영을 하며 실천 방안으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3S’ 즉, 소금(salty), 설탕(sweet), 양념(spicy)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부터 MSG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요리합니다. 식당에서는 조미료 사입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식당 곳곳에 부착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 오늘의 생협이 있기까지

정진성 사무국장은 글로벌캠퍼스에 생협을 만들고 지금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쓴 주인공으로 손꼽힌다. 그는 생협이 만들어 질 즈음의 분위기를 들려준다.

“1989년 글로벌캠퍼스의 복지 시설은 한마디로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식당과 매점 몇 개, 자판기 등이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대학교도 복지에 대해 별다른 개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학생회 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의 대학 생협 운영 사례를 접하게 됐습니다. 일본 생협 사례를 우리 학교에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이 생협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생협이 있기까지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이후 총학생회에서 복지위원회를 분리해 생협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1989년 겨울에 설립 준비를 해, 1990년 5월 250명의 학생 조합원이 참여하며 대학 생협이 출범하기에 이른다. 생협 ‘조합원 1호’라고 말하는 정진성 사무국장은 당시를 회상한다.

“생협을 출범하고 그해 8월에 학생회관 식당을 인수해 직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700명이던 이용자가 2,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돼 학생회관 옆에 임시로 식당 홀을 만들었습니다. 임시 건물이 있던 자리는 세월이 흘러 현재 농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갖은 노력 끝에 1994년 2월에 대학교와 ‘대생협 관련 복지 문제 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 생협이 하는 착하고 좋은 일

정진성 사무국장은 생협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긴 과정에서 결코 잊히지 않는 몇 가지 장면을 기쁨이자 보람으로 꼽는다. 1996년 후생관을 건립하면서 글로벌캠퍼스 복지의 구심점이 생긴 순간, 2014년 후생관 3층에 맘스터치 외대점을 신설하던 순간 등이다. 5년 전 후생관 2, 3층에 화물용 덤웨이터를 설치하던 순간도 손에 꼽는다.

“맘스터치 입점은 4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꾸준하고 긴 협상을 거쳐 맘스터치를 오픈할 때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2시간 대기를 할 정도였죠. 또 2018년 후생관 2, 3층에 화물용 덤웨이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등짐을 지고 물건을 날라야 했습니다. 덤웨이터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더이상 힘들지 않게 돼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진성 사무국장은 생협을 설립하고 지난 34년간 생협 직원들이 묵묵히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조합 일에 매진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생협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일에 앞장선다. ‘사랑의 연탄 나눔’이나 ‘반찬 나눔’ 활동이 대표적이다.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해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결손 가정이나 독거 노인 가구를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이나 ‘반찬 나눔’ ‘김장 나눔’ 활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구성원 참여로 성장하는 행복 공동체

정진성 사무국장은 외대 영어과 84학번으로 동문이기도 하다. 동문으로서 우리 대학 구성원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정진성 사무국장은 행운이자 행복이라고 말한다.

“졸업을 앞두고 생협에 남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던 건 아닙니다. 생협 초기에는 여러가지 갈등,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협을 설립한 책임감과 생협 사업을 통해 글로벌캠퍼스의 열악한 복지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열정과 도전 의식이 오늘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나온 길은 제게 특별한 행운이자 큰 행복입니다.”

생협은 조합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장학 사업이나 복지 시설 재투자, 대학 발전기금 등으로 구성원에게 환원한다. 지금까지 대학 발전기금으로 16억원, 장학기금으로 7억3천만원을 환원했다. 정진성 사무국장은 간혹 구성원 중 생협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생협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들려줬다.

“생협을 영리를 추구하는 외부 업체로 인식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생협은 생협법에 근거해 비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설립하고 의견을 모아 운영하는 조직이며, 구성원의 참여로 성장하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생협은 최근 기숙사 식당 직영 요청에 따라 기숙사 운영팀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향후 식당 운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교직원 저녁 식사 제공 등 후생관 학생 식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Chat GPT가 바꿀 세상



전병환  
컴퓨터공학부 교수

## Chat GPT, 대부분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 가져

Chat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사전 학습된 생성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형 인공지능(AI) 모델인데, 파라미터의 개수는 모델의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수집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모델이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앞 뒤 문맥을 이해하고, 문장 내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Transformer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하여 Transfer Learning이라는 기법도 사용합니다. 이는 가령, 소설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 서비스, 교육, 콘텐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위에서 언급한 방법만으로는 정답은 잘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전히 로봇처럼 딱딱한 말투로 글을 생성해낼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Chat GPT는 강화학습 기반의 Human Feedback 방법을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생성 가능한 몇 가지 안을 모델이 제안해주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제로 가장 그럴듯하게 대답한 것들을 선택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작업을 반복시키다 보면 실제로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말투도 변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자주 사용하고 싶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Chat GPT는 대부분의 지식 기반 분야에 보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교육, 콘텐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일의 초벌 작업을 신속히 수행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부분에는 결국 전문가가 개입하여 일을 완성하는 형태가 되는데,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 걱정보다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려는 노력 필요

뉴스를 보면 Chat GPT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걱정보다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잘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발판 삼아 활용을 잘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은 아무리 막아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방식보다는 AI를 활용함에 있어 인류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AI가 인간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I가 사람들의 일상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AI의 결정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학습이 편향되어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제공하거나 특정 그룹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 보안에 대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자,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H

U

#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HUFS Institutes

HUFS Books

F

S





## 개교 69주년 기념식 및 HUFS AWARD 시상식

우리 대학은 4월 19(수)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 행사는 김광호 기획조정처장의 학교 연혁 보고를 시작으로 김중철 이사장, 박정운 총장의 기념사,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중철 이사장은 “양 캠퍼스 중복학과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된 혁신안을 추진하는 학교의 노력에 앞으로 적극 성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운 총장은 “오직 학교를 사랑하는 한뜻으로 외대만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인집 총동문회장은 “우리 학교의 비전인 ‘외국학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으로 마음을 합쳐 나아가자”며 단합을 당부했다. 동원교육상은 교육자로서 본보기가 된 데 대해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윤은경 교수가 수상했고, 이후 장기근속자, 우수 교원 및 직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HUFS AWARD 시상식에서는 국내 부문 강덕영(국제통상 65)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대표이사, 해외 부문 김광성 (Kevin S. Kim)(영어 76) Bank of Hope 행장이 수상했다.



##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

4월 3일(월) 우리 대학은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박병철(국제통상 67) Everest Trading Corp. 회장에게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박병철 회장은 답사에서 “무역인으로서의 시작을 열어준 것이 바로 한국외대에 입학한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노력’과 ‘신용’의 가치를 전하며, “오늘의 이 명예가 한국외대와 한인 사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여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철 회장은 1948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나 1973년 우리 대학 무역학과(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다. 세계적 가방 브랜드인 Everest Trading Corp. 회장으로 있으며, 2018년에는 우리 대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HUFS AWARD를 수상했다.





##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

4월 6일(목) 우리 대학은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에게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배동현 이사장은 답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교인 한국외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인재 중심의 경영 가치 추구에 매진할 것이며, 오늘 모교를 통해 큰 선물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동현 이사장은 2010년 우리 대학 졸업 후 BDH재단 이사장 및 창성그룹 총괄 부회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과 자아 실현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지난 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으로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선임됐고, 그 공로로 2019년 대통령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훈했다.



##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3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이 데이터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2023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기업이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우리 대학을 포함, 고려대, 서울과기대 등 12개 운영 기관이 선정돼 산업 현장 맞춤형 데이터 고급 인력을 융합 과정과 특화 과정으로 구분해 양성한다.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 사업 총괄책임자 두일철 교수는 “한국외대는 응용 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공학, 머신러닝/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교육과정과 기초/심화 프로젝트, 기업 멘토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 캐글(Kaggle) Competition을 이용한 팀 프로젝트 실습, 한국어에 특화된 자연어처리 실습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캠퍼스 도서관,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및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도서 기증식**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도서관(관장 조희문)은 2월 27일(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언어개발센터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어 교육과 관련된 서적에 대한 도서 기증식을 개최했다. 기증식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언어개발센터 대표 이와 루크마나 박사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고곳 수하 르위토 교육담당관 외 2명이 도서관을 방문했다. 기증식에서는 기증서와 기념패 교환이 이어졌고, 행사 후 도서관을 둘러본 뒤 기념촬영으로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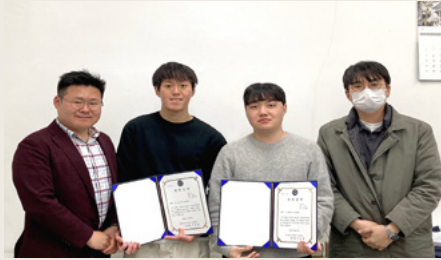
**조정부, 창설 60주년 기념식**  
우리 대학 중앙동아리 조정부(HUFS Rowing, 지도교수 김봉철)는 2월 28일(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정운 총장, 양인집 총동문회장, 오세문 대한조정협회장(국제통상 87)의 축사, 공로패 수여, 장학증서 및 깃발 전달, 케이크 커팅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60주년 기념식을 맞이해 조정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정부의 발전과 미래를 공유하며 학교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탈리아어과,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학과장 최병진)는 3월 7일(화) 이탈리아어과 학과장실에서 2023학년도 1학기 이탈리아어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는 전성철 장학생으로 선발된 정영비(19학번), 김수아(20학번), 노태민(20학번), 임주영(22학번) 학생과 이탈리아어과 창립 50주년 장학생 김태겸(19학번), 정륜오(19학번)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시홍 서양어대학장, 빈첸조 프라테리고 명예교수, 전성철 동문, 박관수 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국외대-동대문구, 교육 취약계층 대상 어학 멘토링 <키다리 서포터즈> 발대식**  
우리 대학은 3월 28일(화)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어학 멘토링 프로그램 '제1기 동대문구 어학 키다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키다리 서포터즈>는 우리 대학 재학생과 교육복지 대상 학생을 멘토-멘티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인 학생에게는 지역 사회 교육 봉사과 공공기관 현장 실습을 통한 다양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멘티인 학생에게는 수준별 맞춤형 어학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국제학부, 2023학년도 1학기 김봉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는 3월 28일(화) '2023학년도 1학기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박철웅(18학번), 김정혁(21학번) 이상 학번 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 장학금은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의 1억원 약정 기부금으로 조성돼 매 학기 국제학부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행사에는 국제학부 김봉철 교수와 이승래 교수가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을 격려했다.



**한국외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공동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과 공동으로 3월 30일(목)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행사'를 주제로 사진전, 영화제 등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개막식에서는 베겐치 두르디예프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와 우리 대학 EU연구소 김봉철 소장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수들의 공연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환경과 문화를 볼 수 있는 사진전,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국외대, 동대문구와 어학 멘토링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3월 10일(금)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에 거주하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어학 멘토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우리 대학 박정운 총장, 장봉익 미래위원회 위원장, 김현정 교육혁신원장,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 양옥섭 행정국장, 정일영 교육지원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은 외국어 구사 역량이 뛰어난 재학생을 선발해 멘토단을 구성하고 교육을 맡게 된다.



**정년퇴직 교원 정부포상 및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식**  
지난 3월 15일(수)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정년퇴직 교원 정부포상 및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임명된 교원은 영어대학 영미문화문화학과 박우수 교수, 손동호 교수, 상경대학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경영대학 경영학부 권석균 교수, 사범대학 교직 김신영 교수,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문유진 교수,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연규 교수,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최경일 교수,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김희동 교수, 국제지역대학원 김원호 교수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제2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서포터즈 발족**  
우리 대학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 진로취업지원센터는 3월 13일(월) 진로취업지원센터의 인지도 확산 및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2기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하고 임명식을 개최했다. 제2기 학생 서포터즈는 총 6명의 학생으로, 이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및 진로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홍보와 더불어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동계 HUFs 글로벌 봉사단 해단식**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2022학년도 동계 HUFs 글로벌 봉사단이 3월 27일(월) 백련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해단식을 개최했다. HUFs 글로벌 봉사단은 1월 7일(토)~15일(일) 베트남 빈롱 Thanh Dyc B 초등학교에서 120여 명의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미술, 과학, 음악, 체육 등 교육문화 봉사활동과 학교 외벽 페인트칠 작업 등 노력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해단식에서는 봉사활동 결과 보고 및 인증서 수여 등이 이뤄졌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육군과 업무 협약**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이은구)과 대한민국 육군(인사참모부장 김준)은 4월 6일(목)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장병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육군 장병들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지원하고, 육군은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해 제2외국어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초급 간부 대상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 2개 언어에 대한 시범 교육이 시작된다.



**서울캠퍼스 도서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2023 한국외대 도서관 음악회> 개최**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도서관(관장 조희문)은 5월 16일(화), 도서관 1층 라운지에서 장일범 음악평론가(노어 87) 사회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23 한국외대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해 3백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문화도서관을 즐겼다. 또한 도서관은 월 1회 수림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콘서트 2023'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대학 도서관 라운지는 사진전과 북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새로운 '독서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청년고용정책'

##### 홍보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3월 22일(수)~23일(목)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4월 5일(수)~6일(목)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학일자리플러스라운지에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홍보와 진로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소개, 정부 청년고용정책 OX 퀴즈, '취업 기원 포구(포스트잇 꾸미기)', 취업희망나무 소망걸기 행사와 청년고용정책 소개 게시판에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취업 지원 정책을 홍보했다.



#### 한국외대, 한-태 수교 65주년 기념

##### 새해맞이 송고란 축제 및 사진전

우리 대학 태국어과(학과장 신근혜)와 태국어통번역학과(학과장 윤경원은)는 4월 14일(금) 서울캠퍼스에서 송고란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태국어 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태국 M.L. 본리아 텡파야썬완 재단, 신라빠컨대학교 및 탐마삿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이은구) 후원으로 개최됐다. '2023 태국 송고란 축제'는 태국 동북부와 남부 지방의 전통춤 공연과 태국 팝가요 공연 등 태국어과, 태국어통번역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 인권센터,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 선정

우리 대학 인권센터(센터장 박희호)가 교육부가 주관한 2023년도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별로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권 친화 문화 확산에 모범이 될 선진대학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대학은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이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환경학과, 진로취업지원센터 공동

##### '동문 진로 특강' 개최

우리 대학 환경학과(학과장 정태웅)는 4월 29일(토) 진로취업지원센터 후원으로 사회 전반에 진출한 동문을 초청해 재학생 대상 진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백건우(12학번, 현대제철), 전용욱(16학번, 포스코퓨처엠), 강세웅(17학번, SK하이이엔지), 이동현(17학번, LG생활건강), 홍지연(18학번,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환경학과를 졸업한 동문이 연사로 초청돼 현재 맡은 직무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사전에 준비된 재학생들의 질문에 발표자들이 답하며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 GTEP(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사업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리 대학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백재승)은 3월 30일(목)~4월 2일(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메가쇼 2023', 4월 5일(수)~8일(토)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커피엑스포'와 '제5회 대한민국맥주박람회' 등 국내 전시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미래 무역인으로서의 열정을 보여줬다. 또한 4월 11일(화)~14일(금) 홍콩에서 열린 '홍콩 글로벌소싱쇼(HKDC Hong Kong International Sourcing Show 2023)'에도 참가해 무역 인재로서 활동을 전개했다.



#### 한국외대,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사업 수주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원장 교윤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으로부터 '다국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 수업 동영상(고급)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사업'과 'AI 활용 1인1외국어교육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방안 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특히 '다국어 수업 동영상(고급)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사업'은 약 2억9,600만원 규모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국어 교육을 위한 고급 수준의 수업 동영상과 교수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 학생·인재개발처, 글로벌 근로장학 기관 설명회

우리 대학 학생·인재개발처 장학팀과 학생지원·장학팀은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4월 18일(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글로벌 근로장학 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 국가 근로장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처음 마련한 자리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프랑스관광청 한국사무소,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 한아프리카재단,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주한 멕시코 대사관, 한불상공회의소,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등 총 9개 글로벌 근로 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진로취업지원센터-특수

##### 외국어교육진흥원 공동 '동문 진로 특강' 개최

우리 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학과장 오종진)는 4월 17일(월) 진로취업지원센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한 '동문 진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동문회장 UIB GROUP 상무 천부기(91학번), 하나은행 상도역 지점 과장 박광균(01학번), 노무법인 유엔 수석 공인노무사 이재선(05학번) 동문이 참석했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재학생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활약하는 동문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진로의 다양한 사례를 접했다.



#### 한국어문화교육원, '2023 제17회 문화 엑스포'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홍충명)은 4월 28일(금)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2023 제17회 문화 엑스포(2023 Cultural EXPO)'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웅웅 사업지원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스 탐방, 공연, 시상 및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다. 문화 엑스포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유의 음식과 전통 의상, 문화 등을 소개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다. 이번 문화 엑스포 부스는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등 25개로 구성됐다.



#### 한국외대, 스승의 날 기념 카네이션 증정 행사

우리 대학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5월 12일(금)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총장실, 5월 15일(월)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총장실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카네이션 증정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이벤트로, 박정운 총장을 비롯해 김태성 부총장, 정상철 부총장 등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등 사제간 돈독한 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아랍어과, 송웅업 전 주이라크 대사 초청

#####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 개최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5월 12일(금) 인문과학관 509호 강의실에서 송웅업 전 주이라크 대사를 초청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위 '제2의 중동의 봄'을 맞이해 우리 나라의 대아랍권 국가 국제개발협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랍어 전공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 진출 정보를 제공하려 마련됐다. 송웅업 전 대사는 "다양한 아랍 국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 사무소가 운영되는 만큼 아랍어 전공자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 입학처, 'HUFS 교사컨퍼런스'-'HUFS 1:1 맞춤 컨설팅' 연계 프로그램 개최

우리 대학 입학처(처장 정석오)는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월 12일(금)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 대상 'HUFS 교사컨퍼런스' 행사와 5월 13일(토) 수도권 지역 'HUFS 1:1 맞춤 컨설팅' 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지역 행사에서는 수도권 지역 고교 교사 150여 명, 수험생 및 학부모 총 300여 명이 참석해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접했다. 5월 19~20일 제주, 5월 26~27일 충청권, 6월 2~3일 강원권, 6월 16~17일 경남권(부산), 6월 30일~7월 1일 경북권(대구), 7월 7~8일 전라권 등에서 진행된다.



## 한국외대

### 한국외대, '대전환시대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전망' 국제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은 3월 31일(금) 송도캠퍼스 국제교육센터에서 '대전환시대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과 유락세스(EURAXESS),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후원하고 우리 대학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 인도연구소 HK+사업단, 극지연구센터, 중국연구소, 법학연구소,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로, 북극에서 남극, 중국과 인도, 유럽과 중남미까지 지역학에 관한 고민의 장으로 마련됐다.



## 국제지역대학원

### 인도-태평양 연구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대만 국립정치대 공동 국제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원장 홍완석) 인도-태평양 연구팀(연구책임자 온대원)과 호주외교안보연구센터는 3월 24일(금)~25일(토) 타이베이에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대만 국립정치대학(NCCU)과 공동으로 '마-중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 대만해협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소다자주의적 해결방법 모색'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됐다.



## 국제지역연구센터

### HK+국가전략사업단, 현대중국학회 및 방송대 통합인문학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4월 21일(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에서 현대중국학회 및 방송대 통합인문학연구소와 '복합위기 시대, 중국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1부 주재우 경희대 교수,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대표 발제와 제2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연원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 HK+국가전략사업단, 2023년 제1회 Istanbul Security Forum 참가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5월 2일(화)~3일(수)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3년 제1회 Istanbul Security Forum(이하 'ISF')에 참가했다. 올해 창립총회를 가진 ISF는 터키 대통령실 산하 Directorate of Communications가 주관하며, 이번 제1회 포럼에서는 21개국, 63명의 전문가가 14개 패널에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우리 대학은 HK+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 HK교수와 공동연구원 오종진 교수(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가 '마-러-중 관계에서의 세력균형' 패널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 동남아연구소

### 4월, 5월 정기 독회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4월 24일(월)과 5월 30일(화)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정기 독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 서준수 박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과 동남아시아의 기록유산'을 주제로, 5월 독회는 우리 대학 조민성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을 주제로 발표했다.



## 러시아연구소

### '세계 속의 러시아: 루소포비아와 냉전의 역사' HK+ 학술회의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 HK+사업단은 2월 28일(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는 HK+ 연구사업의 2단계 1년차 학술 활동으로, '세계 속의 러시아: 루소포비아와 냉전의 역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 김준석 HK연구교수는 '19세기에 바라본 러시아와 미국'을 주제로, 2세션 김선래 HK연구교수는 '대러시아 제재와 한국의 에너지 수급전략'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 동대문화재단과 업무 협약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센터장 서중석)는 2월 22일(수) 동대문화재단과 '동대문구 문화 활성화와 지역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서중석 센터장과 동대문화재단 이필형 이사장(동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목적은 동대문문화재단 산하 옹두어린이영어도서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지역 인문학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각종 학술 정보 교환, 지역 인문학 교육 및 학술 분야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외국문학연구소

### 2023 봄 정기 학술대회

우리 대학 외국문학연구소(소장 장은수)는 4월 7일(금)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단장 서중석)와 공동으로 '문학·콘텐츠·매체'를 주제로 2023년 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 1부는 '근대 독일 사회의 책 읽기 문화'(목원대 서정일), '아니 에르노의 오토픽션을 영화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강원대 오보배), '스토리텔링과 문학의 확장성'(한국외대 신현호) 주제 발표에 이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는 우리 대학과 연세대 석박사과정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역사문화연구소

###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교류 협정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영)는 3월 23일(목)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한국학연구소(소장 여병무)와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한국과 몽골간의 역사와 대외 관계, 언어 등의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몽골 양국간의 역사와 문화, 사회 및 연구 활동에 대해 교류와 상호 협력을 증진·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제178회 콜로кви엄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영)는 4월 10일(월)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417호에서 제178회 정기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кви엄의 주제는 '오스만제국 데브시르메 재상 시대의 시작'으로 우리 대학 이영희 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관련 전공 연구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영희 박사는 이번 콜로кви엄을 통해 데브시르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많은 참가자의 관심을 끌어냈으며, 이후 질의 응답에서 많은 토론과 질문이 오고 갔다.



## 이탈리아연구센터(CISIC)

### 주한 이탈리아 무역관장 초청 세미나

우리 대학 이탈리아연구센터(소장 김시흥)는 3월 29일(수) ITA(Italian Trade Agency, 이탈리아 무역공사)가 운영하는 하이스트리트이탈리아(High Street Italia) 4층 홍보관에서 페르디난도 겔리(Dott. Ferdinando Gueli) 주한 이탈리아 무역관장을 초청해 '한국의 이탈리아와 한-이탈리아 경제무역관계(Italy in Korea & Italy-Korea Economic and Trade Relations)'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공동 세미나

우리 대학 이탈리아연구센터(소장 김시흥)는 4월 26일(수)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속의 이탈리아와 한-이 양자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2024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해 양자 관계를 돌아보고 실질적 관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국제 사회의 변동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한-이탈리아 양국의 첨단 산업 분야인 반도체, 배터리, 로봇틱스,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는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양자간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 인도연구소 HK+사업단

### 인도의 대전환 총서 「Great Transition in Indian Society: Issues and Debates」 발간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사업단은 「인도의 대전환 총서」 시리즈 중 22번째 책인 「Great Transition in Indian Society: Issues and Debates」를 싱가포르 출판사인 World Scientific에서 발간했다. 이번 에 발간한 「Great Transition in Indian Society: Issues and Debates」는 「인도의 대전환」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한 연구 결과물로 일본, 인도, 한국 등 세계 인도 학 연구자들이 인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59회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사업단은 4월 21일(금) 인도 첸나이에서 활동하는 현대 시각 예술가 파르바티 나야르와 극작가 겸 연구자인 나만타르 나야르를 초청해 제59회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특강과 달리 비주얼 아트 작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한국전 포로들이 제3국행을 택해 인도에서 생활하던 내용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강의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연 성격상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활용돼 청중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장모네 EU센터

### 한-EU 수교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3월 21일(화) 대학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 유락세스(EURAXESS)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국제회의는 김창범 주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전 주한 EU 대사와 Tereza Novotna(Free Univ of Berlin), Nicola Casarini(IAI and Wilson Center), Bernhard Seliger(Hanns Seidel Foundation) 등 유럽의 저명한 학자를 초청해 한-EU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명사 초청 릴레이 세미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인사 초청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11일(화)에는 대학본부 329호에서 고려대 박성훈 전 국제대학원장을 초청해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무역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으며, 5월 16일(화) 대학본부 1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부경대 정해조 전 한국유럽학회장을 초청해 「글로벌 지역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럽학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정보·기록학연구소

### 「VAD 패러다임 기반 세미나 동영상 큐레이션 및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 공동 세미나

우리 대학 정보·기록학연구소(소장 노명환)는 4월 22일(토)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와 공동으로 「VAD 패러다임 기반 세미나 동영상 큐레이션 및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이날 세미나에서 「PEACO VAD 시맨틱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 패러다임과 DB 구축 기술 및 방법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 중국연구소

### 2023년도 정기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국연구소(소장 나만구)는 5월 12일(금) 도서관 5층 휠라아쿠슈네트홀에서 「미래를 향한 중국 연구의 변화와 지속」이란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과학 및 어문학 분야에서 활약하는 젊은 학자를 중심으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사회과학 분야 강진석 교수(중국외교통상학부)와 어문학 분야 나만구 교수(중국언어문화학부)의 사회로 ▲박한진 초빙교수(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김백균 교수(중앙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4월 3일(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고인류학자 정혜주 교수를 초청해 「자연재해가 마야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월요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혜주 교수는 빨렌께(Palenque), 띠칼(Tikal), 치첸이트사(Chichén Itzá), 칼라크몰(Calakmul) 등 다양한 마야문명의 유적과 특징을 소개하고,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존재했던 마야문명의 몰락 원인을 설명했다.



### 「UN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참가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4월 22(토)~24(월) 3일간 뉴욕 UN 총회(UN ECOSOC Chamber)가 기념하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2023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사업단을 이끄는 신정환 단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12th Interactive Dialogue of the General Assembly」 패널에서 신정환 단장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권의 제도적 수용(지구법학 관점)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조례 채택 등 한국 사례를 소개했다.



## 중동연구소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체결식 및 집담회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유달승)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은 2월 24일(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과 업무 협약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달승 중동연구소장과 전영준 탐라문화연구원장,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해 각서 체결식 이후 진행된 집담회에서는 양기관의 연구 주제와 방향을 소개하고, 향후 공동 연구 추진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 중앙아시아연구소

### 「제11회 동북아-중앙아시아 사회정책학회 국제 심포지움」

우리 대학 중앙아시아연구소(소장 손영호)는 5월 9일(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한국 동북아-중앙아시아 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HK+국가전략사업단, 국회 고성연수원,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1회 동북아-중앙아시아 사회정책학회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각 세션에서 「사회정책」 「노인복지」 「주택 및 의료 정책」을 주제로 카자흐스탄, 몽골, 한국 학자간 논의가 진행됐다.



## EU연구소

### 인문사회연구사업단, 바우하우스 강좌 제2강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 인문사회연구사업단(연구책임자 김면희)은 4월 21일(금)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경희대학교 김만권 교수를 초청해 「한나 아렌트와 사회계약」이라는 주제로 바우하우스(Bauhaus) 강좌 제2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포스트 베스트팔렌 세계(post-Westphalia)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계약론의 필요와 한나 아렌트의 「행위이론(Theory of action)」을 「사회(간) 계약 이론(social contract theory)」으로 재구성해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 환경과학연구소

### 국립환경과학원 공동 국제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환경과학연구소(소장 이태형)는 3월 23일(목)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과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에 즈음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미국 아이다호 주정부 연구자와 수질 연구 저명 인사를 초청해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수계 신중 오염물질의 수질 기준 개발에 대한 현안 및 근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초 연사로 수질 연구자 Bryan Brooks 교수를 초청했다.





HUFS Professors



**이상빈 EICC학과 교수,  
한국통역번역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 EICC학과 이상빈 교수가 지난 3월 25일 (토) 우리 대학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통역번역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 학술대회에서 한국통역번역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상빈 교수가 수상한 최우수 논문상은 지난 1년간 <통역과 번역>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 업적에 주어지는 상이다.



**김용애 화학과 교수,  
제56회 과학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 대학 화학과 김용애 교수(자연과학대학 학장)가 제56회 과학의 날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 4월 21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행사에서 과학기술진흥유공 분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용애 교수는 35년간 고체상 핵자기공명(NMR) 분광학 분야 전문가다. 질병 치료제로 사용 가능한 세포막 단백질질을 포함하

는 바이오 소재와 고무배합 소재를 포함하는 고분자 소재 등 다양한 소재의 상세 분자구조연구 방법을 개발했으며, 국내 최초로 시료 맞춤형 고체상NMR 프로브를 개발해 제작하고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에 기여했다. 김용애 교수는 국내 외 연구 활동을 통해 신진 남녀과학기술인의 교육과 사회적 성장 기반 수립, 나아가 국가 위상 제고에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익수 ELLT학과 교수(hufscogling 연구실),  
연구산학협력단 우수 연구실 선정**

우리 대학 ELLT학과 권익수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있는 hufscogling 연구실이 2월 25일(토) 우리 대학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2022년 우수연구실 선발대회'에서 우수 연구실로 선정됐다. 우수 연구실로 선정된 hufscogling 연구실에는 연구산학협력단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hufscogling 연구실은 권익수 교수가 동 대학원 영어학과 대학원생 연구보조원(박사과정 강지인, 석사과정 강루미)과 연구를 진행하는 단위로, '코로나 상황 속 의미가능어 확장된 영어 표현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홍 이탈리아어과 교수, 외교부 초청  
한-EU 수교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우리 대학 이탈리아어과 김시홍 교수(서양어대학 학장)가 5월 1일(월)~6일(토) 서울대학교와 벨기에 루벤대학교가 주관하고 외교부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이 후원하는 한-EU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과 파리를 방문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국회에서 김영배, 이윤우 및 전봉민 의원이 참석했고, 외교부에서는 윤순구 대사와 우정엽 전략기획관이 발표에 나섰다. 유럽 측에서는 대외관계청 스테파노 산니니 사무차관, 군너 비간트 아시아태평양실장 등 주요 중국의 관계자들이 토론에 임했다. 김시홍 교수는 한국과 우리 대학 유럽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행사에 이어 브뤼셀 소재 자유대학(VUB) 유럽연구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파리 유럽연합안보연구원(EUISS) 연구진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HUFS Professors

교수 출간



**안미경 외국문학연구소 교수,  
담화인지언어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외국문학연구소 안미경 교수(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교수)는 4월 22일(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담화인지언어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3년 7월부터 2년이다. 안미경 교수는 담화분석, 문법화, 화용론, 인지언어학 분야의 지속적 연구를 통해 국제 저명 학술지(A&HCI)인 <Journal of Pragmatics> <Lingua> <Language Sciences> <Studies in Language> <Diachronica> <Language and Linguistics> <Text & Talk>에 총 13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1991년 설립된 담화인지언어학회는 담화와 인지 분야 언어 연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학술지 <담화와 인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술지 평가에서 언어학 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됐다.



**이재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시민갤러리 사업 전문 작가 선정**

우리 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이재원 교수(중앙동아리 '하안공간' 지도교수)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시민갤러리 사업에 전문 작가로 선정돼 5월 16일(화)~6월 10일(토)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시민갤러리에서 '머언 여행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에는 최근에 제작된 70여 점의 작품뿐만 아니라 도슨트 투어와 아이패드 드로잉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재원 교수는 제1회 대한민국 교직원미술대전(세종문화회관) 입상을 시작으로 세계미술교육학회 초대전(대구 EXCO)에 초대됐으며,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일산 꽃박람회 전시장), 제2회 대한민국 교직원미술대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3회 남농미술대전(목포문화예술회관) 등 다수 미술전에서 입상한 바 있다.

**정창욱 전자물리학과 교수, 신간**

**'만일 물리학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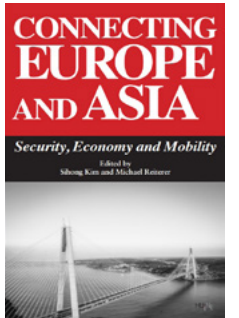
우리 대학 전자물리학과 정창욱 교수가 신간 '만일 물리학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다산북스 콘택트)을 출판했다.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 최소한의 과학 수업'을 표방하는 이번 신간은 대칭성의 원리로 보는 남녀 평등, 용수철 법칙과 닮은 인간 생존 법칙, 고유진동수와 공명의 문제 등(1부)을 통해 절대적 과학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은 삶을 위해 존재할 때 가치 있음을 말한다. 이밖에도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일상의 숨은 과학적 원리를 풀이하고(2부) 우주 시대, 지구인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물리 지식(3부)을 소개한다. 정창욱 교수는 "물리학에는 깊고 아름다운 이론이 많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법칙을 조금만 다시 보면 세상을 깊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 과학은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태도' 그 자체이면서 물리학은 결국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김시홍 이탈리아어과 교수, 신간**

**'Connecting Europe and Asia: Security, Economy and Mobility' 발행**

우리 대학 이탈리아어과 김시홍 교수가 미하엘 라이터러 전 주한 EU 대사와 공동으로 편집한 영문 저서 'Connecting Europe and Asia: Security, Economy and Mobility'(HUINE)를 출간했다. 유럽과 한국에서 10명의 학자가 참가해 집필한 이 책은 점증하는 마-중 전략 갈등과 탈냉전 및 탈세계화 시기에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지향하는 양자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 안보, 경제 무역 및 이동성 증대에 대한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 외국어연수평가원

## 2023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 구분   | 과정명            | 개강시기    | 2023년 하반기 교육일정   |
|------|----------------|---------|------------------|
| 주중과정 | 20주 주간과정       | 2월, 8월  | 08. 07. ~12. 22. |
|      | 방학특별과정         | 7월, 12월 | 12. 26. ~01. 23. |
| 아간과정 | 아간회화과정         | 3월, 8월  | 08. 29. ~11. 23. |
| 주말과정 | 주말특별과정         | 3월, 8월  | 08. 26. ~12. 09. |
| 외시과정 |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과정 | 3월, 9월  | 09. 06. ~12. 27. |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는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아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 특별과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57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이메일** flttc@hufs.ac.kr

##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정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서울시청, 씨티은행, 법원행정처, 예금보호공사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의 위탁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이메일** flttc@hufs.ac.kr

##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인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연 3차례(5월, 7월,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 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평일과 주말에 모든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이메일** aulacervantes@hufs.ac.kr

## 서울평생교육원

## 2023년 개설 강좌

| 구분    | 과정명         | 개강시기    | 2023년 하반기 교육일정   |
|-------|-------------|---------|------------------|
| 통번역과정 | 통번역기초과정     | 3월, 9월  | 09. 02. ~12. 09. |
| 교양과정  | 부동산 투자 전략과정 | 5월, 10월 | 추후 확정            |
|       | 부동산 경매 입찰과정 |         |                  |
|       | 웹소설 작가 양성과정 |         |                  |
|       | 상담심리학 입문과정  |         |                  |

##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돼 현재 18기(영어, 일본어)를 운영하고 있는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이메일** edulife@hufs.ac.kr

## 실용 교양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교양과정을 신설해 1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 부동산, 웹소설, 상담심리 등 분야를 다양화해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부동산 재테크과정은 「반지하에서 반포아파트 입성하기」의 저자인 이재크 교수의 ‘부동산 투자 전략과정’과 오기열 교수의 ‘부동산 실전 경매 입찰대비반’이 운영된다. 웹소설 작가 양성과정은 웹툰, 웹소설 전문 제작사인 드림픽쳐스21과의 공동 운영 과정으로 현직 인기 웹소설 작가들의 팀티칭으로 작가 데뷔까지 지원한다. 상담심리 입문과정은 우리 대학 현직 상담심리 전공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며, 소규모 토론식 수업으로 예비 전문 상담교사 및 심리상담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평생교육원은 지역 주민, 외대 재학생, 동문 등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양질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문의 02-2173-2515, 2557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 FLEX센터

##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우리 대학이 수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 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 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     | 성적발표일   |         |
|----|------------------|---------|---------|---------|
|    |                  |         | 듣기·읽기   | 쓰기/말하기  |
| 1회 | 02. 16 ~ 02. 22. | 03. 19. | 04. 07. | 04. 21. |
| 2회 | 04. 27 ~ 05. 03. | 05. 28. | 06. 16. | 06. 30. |
| 3회 | 08. 10 ~ 08. 16. | 09. 10. | 09. 29. | 10. 13. |
| 4회 | 10. 05 ~ 10. 11. | 11. 05. | 11. 24. | 12. 08. |

##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별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 TESOL전문교육원

## 2023년 후기(42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23년 9월 4일(월)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23학년도 후기 과정생 일반전형 모집을 진행했다. 5월 1일(월)부터 1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5월 14일(일)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했다. 면접은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로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과한 10여 명이 올해 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23학년도 후기(42기) 특별전형은 오는 7월 3일(월)~10일(월) 1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3504 **홈페이지** <http://tesol.ac.kr>

## 2023학년도 전기(41기) 채용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6월 2023학년도 전기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YB 최선어학원, 한국외대 부설 HIFS 어학원, 외대어학원, 폴리어학원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 이를 동안 진행되는 채용설명회는 업체 내력, 업무 내용, 처우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가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업체마다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기관은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에게는 넓은 취업의 길, 업체에는 인재 획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채용설명회는 분기마다 개최된다.

문의 02-2173-3504 **홈페이지** <http://tesol.ac.kr>

## 한국어문화교육원

## 불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 한국어 과정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불학기

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철저한 방역을 거쳐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했으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홈페이지** <http://www.korean.ac.kr>

##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 2023년 LH 주택토지공사 GLH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3월 6일(월)부터 시작된 LH 주택토지공사 GLH 1학기 과정을 5월 25일(목)에 종료했다. 베트남, 스페인 두 개 국가를 중심으로 언어 수업은 물론 해당 국가의 지역 사정 및 이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1학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6월 6일(화)~17일(토) 스페인 현지 교육을 통한 체험 학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학기 과정은 9월 4일(월)~12월 7일(목) 진행되며, 1학기에 학습한 기초 교육에 이어 심화 교과 과정으로 연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031-330-4808 **홈페이지** <http://gla.hufs.ac.kr>

## 2023년 호텔신라 소믈리에파견자 특별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호텔신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3월 20일(월)~5월 26일(금) 총 10주간의 기간 동안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 교육을 실시했다. 해외 접점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과제 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문의 031-330-4809 **홈페이지** <http://gla.hufs.ac.kr>

## 2023년 하나은행 글로벌전문가 양성과정

국제사회교육원은 4월 1일(토)~6월 16일(금) 총 11주간의 기간 동안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교육을 운영했다. 해당 과정은 하나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대면 및 주중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교육생들은 스페인어와 일본어, 중국어 어학 콘텐츠를 소화하는 한편, 수업 중 진행되는 다양한 이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 비즈니스시 활용하게 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업으로 복귀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문의 031-330-4810 **홈페이지** <http://gla.hufs.ac.kr>

## 삼성 글로벌인력양성과정(2023년 1차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5월 8일(월)~7월 14일(금) 해외 파견 인력 중심의 삼성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1차 삼성 글로벌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총 3개 어종의 입과생을 대상으로 기초 문법부터 실용 회화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학 실력 향상을 목표로 10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가별 지역 사정 및 현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문화 교육 모듈을 추가 구성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물론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는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사회교육원은 이번 1차 과정에 이어 올 하반기 중으로 2, 3차 과정을 연이어 개설해 삼성그룹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330-4809 **홈페이지** <http://gla.hufs.ac.kr>

## 영재교육원 2023년도 여름 캠프 개최

영재교육원은 7월 31일(월)~8월 4일(금) 4박 5일 동안 여름 캠프를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2023년도 현 재원생과 더불어 2021학년도 수료생 및 2022학년도 수료생이며, 40명 내외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글쓰기, 인성, 컴퓨터 과학, 영어토론 등의 수업과 외대부고 멘토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수업, 세계인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명사 특강 등도 듣게 된다. 이번 캠프를 통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혼자 생각하고 성찰하고 한층 더 성장해 각자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힘을 얻어 가기를 기대한다.

문의 031-330-4810 **홈페이지** <http://gla.hufs.ac.kr>

## 통번역센터

##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아프리카의 문화와 예술-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저자가 28년 동안 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에서 강의한 과목의 강의 노트를 수정·보완해 아프리카문화 개론서로 편집한 책이다. 아프리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각 장과 절은 내용상 서로 독립적이거나 느슨하게 연관돼 있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다. 국내 아프리카 관련 서적이 대부분 여행서에 치우쳐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책이 독자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장태상 / 632면 / 크라운판 / 28,000원



KOREA, CHINA and the WORLD

2022년 한해 동안 코리아 헤럴드는 황재호 교수와 협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고, 이를 토대로 황재호 교수는 세계의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시사·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앞으로 계속 필요로 하리라 기대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

황재호 / 530면 / 신국판 / 28,000원

헨리 4세 2부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셰익스피어 전집 중 13번째 도서로, 1600년에 출판된 셰익스피어 도서의 번역본이다. 『헨리 4세 1부』의 연작으로, 슈루즈버리 전투에 이어 반란군의 완전한 진압, 헨리 4세의 죽음, 헨리 5세 등극이라는 역사의 한 부분을 다룬다. 1부에서 던져 놓은 활의 개심, 반란의 진압, 활의 왕위 계승 같은 사건과 주제들은 2부에서 완결되고 완성된다. 맛깔나는 입담을 통해 전해지는 당대의 사회상은 너무 생생해서 지금의 우리를 사로잡기에도 충분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 심자영 옮김 / 260면 / 신국변형판 / 13,000원



종이책 및 전자책 동시 출간작

Connecting Europe and Asia

『유럽과 아시아의 연계성: 안보, 경제 그리고 이동성』은 탈냉전과 탈세계화 시기를 맞이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지향하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간의 관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의 열명의 전문가가 협업해 만들어진 책으로, 안보 문제와 경제 통상 관계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이동성 증대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김사홍, 미하엘 라이더러 / 196면 / 신국변형판 / 20,000원



전자책 출간작

문화의 남북 교류

이 책은 아직 깊은 연구가 많지 않은 남북간에 이뤄진 문명 교류의 양상을 탐색하고자 집필한 것이다. 일곱 편의 각각 다른 주제의 글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각 지역의 문화가 복합적 문화 교류의 산물로 나타나며, 다시 새로운 매체에 의해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나눔 정신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왔음을 확인하고, 문명 교류의 새로운 연구 방향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

김현주, 장석호, 이평래, 윤은숙, 정호준, 주수현, 장수현, 박재명 / epub 2.0 / 15,000원



몽골 중국 베트남 문명 교류의 시작

몽·중·월 프로젝트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의 하나로,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성격으로 수용·전파된 문명의 교류를 찾는 연구 작업이다. 동아시아 문명 교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남북 세로축을 몽·중·월 축, 몽골, 중국, 베트남의 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문명 교류가 동서와 남북, 가로축과 세로축이 조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됐음을 밝힌다. 이런 연구가 다른 문명권의 교류에 대한 보편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정립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몽중월 프로젝트(왕소둔(王小盾), 테.자가르페렌레이(T. Zagarperenlei), 정호준, 정광훈, 김미순·주수현, 송정남, 쩌반딘(Trịnh Văn Định), 박재명) / epub 2.0 / 20,000원



# 언어를 배우다 문화를 만나다

사이버한국외대 신·편입생 모집

모집 일정 1차 23. 6. 1(목) ~ 7. 13(목)

2차 23. 8. 1(화) ~ 8. 17(목)

## 모집학부·학과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입학상담

02-2173-2580

TALK ID. cufs



## 한국외대 동문·교직원(가족) 대상 장학 혜택

**동문장학금** 한국외대 학부 졸업자 및 2촌 이내 가족(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 감면)

**외대복지장학금** 한국외대, 부속외고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자녀(전액 감면), 배우자(50% 감면)

# H U

## Donation & Alumni



# F S





DONATION  
I

용을식 KDI그룹 회장 총 기부액 5억원,  
‘용을식 강의실’ 헌정받아

용을식(영어 56) KDI그룹 회장이 우리 대학에 보내온 기부금이 총 5억원을 넘어섰다. 용을식 회장은 1992년부터 모교에 기부를 시작, 최근에는 2억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회사해 현재까지 총 5억3천3백만원을 기부했다. 이러한 용을식 회장의 뜻을 기리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3월 8일(수)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401호에서 용을식 강의실 헌정식을 개최했다. 용을식 회장은 졸업 후 KD인터내셔널사를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를 누비는 국제 무역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업의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고 대학 교육의 발전을 통한 인재 양성, 인류 공헌의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용을식 회장은 “1950년대 한국외대는 탄생과 함께 특별한 학교였고 지금까지도 외대생, 외대인은 ‘대한민국의 특별한 엘리트’의 대명사로 그 영예를 이어가고 있다. 외대인의 특별한 자부심의 전통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학교에서 익힌 지식을 세계인들과 나누고 교류해 훗날 외대 발전 선순환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소회를 밝혔다.



DONATION  
II

김세원 여성동문회 명예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4월 20일(목) 김세원(프랑스어 63) 한국외대 여성동문회 명예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성우이자 前 EBS 이사장을 역임한 언론·방송인으로서 현재까지 60여 년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세원 회장은 이번 발전기금 기탁을 통해 “젊은 시절 나를 성장시킨 외대, 이제는 그 고마움을 후배들에게 갚을 때라는 생각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낸 모교가 21세기에도 그와 같은 건학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기탁 소회를 밝혔다. 이에 박정운 총장은 “오랫동안 방송계에서 수많은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신 김세원 동문께서 이제는 모교의 후배들과 교직원, 나아가 17만 국내의 동문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DONATION  
III

주영림 영어대학 동문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3월 30일(목) 주영림(영어 79) 우리 대학 영어대학 동문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약정했다. 주영림 회장은 올 3월 영어대학 동문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개최된 약정식 행사에는 주영림 회장을 포함해 영어대학의 최봉식(영어 81) 동문, 이휘재(영어 83) 동문회 사무총장, 김선경(영어 86) 동문이 자리를 빛냈으며, 박정운 총장과 오종진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주영림 회장은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야말로 내일의 희망이기에 모교 후배들이 세계와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전진해 인류 발전에 공헌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정운 총장은 “교육계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교육 백년지대계’를 이루는데 공헌했으며,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거액의 발전기금을 회사해주신 주영림 회장의 숭고한 뜻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오직 인재 양성을 위한 회장님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 발전기금을 소중하게 쓰겠다”고 전했다.



DONATION  
IV

임창일 (주)신우냉장 회장,  
발전기금 1억원 기부

5월 17일(수) 임창일(말레이·인도네시아어 71) (주)신우냉장 회장이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임창일 회장은 “직장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외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외대는 단순히 어학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글자의 도전 정신, 글로벌 마인드를 체득하게 해준 곳이다. 동문으로서 모교가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 큰 기쁨이고 후배들의 성장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1999년 냉동·냉장 창고를 인수하면서부터 (주)신우냉장을 냉동·냉장·보관의 영역을 넘어 종합 냉동·냉장 창고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식품, 냉장 서비스의 전문가다.



2023 제3회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수여식

2023 제3회 청농(靑農)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수여식이 5월 8일(월)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이덕선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여식에는 유가족인 강성룡 변호사, 강해연 님, 강효영 변호사 등 3남매와 총동문회의 양인집 총동문화장과 구종재 사무총장, 우리 대학 박정운 총장과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오종진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은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남·여학생 1명씩을 선발해 500만원씩 총 일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올해까지 여섯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신동재(경영 19), 신서현(EICC 22) 학생은 학업 성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획재무 분야 및 통역에 대한 열정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제3회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생의 주인공이 됐다.



제14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 수여식

3월 21일(화) '제14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 수여식'이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이하 씨앗 장학금)은 우리 대학에 재직하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모금하기 시작한 장학금이다. 매학기 양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소중한 마음이 모여 지난해 8월 기탁액 1억원을 달성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씨앗 장학생으로 선발된 양캠퍼스 학생 2명씩 총 4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씨앗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라는 장학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되 학업 성적은 물론 다양한 교내외 활동 참여도를 반영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한목소리로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어과, 최연도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독일어과(학과장 김형래)는 5월 18일(목) 서울캠퍼스 독일어과강실에서 '2023 독일어과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 허소정(독일어 85) 독일어과 총동문화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과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최연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최연도 장학금'은 최연도 동문(독일어 59, 전 뉴욕동문회 이사장)이 기탁한 1억여 원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학과는 매년 다양한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허소정 총동문화장이 독일어과 학생회장 김가영, 부학생회장 윤정현 학생에게 최연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이난아 교수, 천부기 동문화장, 학과 발전기금 기부

5월 25일(목)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이난아(84학번) 교수, 천부기(91학번)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동문화장이 학과 발전기금 1천만원씩을 기부했다. 이 교수는 "모교 후배들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 회장은 "모교, 학과 선후배들이 졸업 후에도 큰 힘이 되었다. 더 많은 동문이 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는 1973년 터키어과 창립 후 2008년 지금의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로 확대개편을 거치면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두 기부자는 학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등 학과의 발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발전기금이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evin S. Kim(영어 76) 美 Bank of Hope 회장 모교 방문, 개교 69주년 HUFs AWARD 수상

5월 2일(화) Kevin S. Kim(한국명 김광성, 영어 76), 美 Bank of Hope 행장이 모교를 방문해 개교 69주년 HUFs AWARD를 수상했다. Kevin S. Kim 행장은 지난 4월 19일(수) 열린 개교 69주년 기념식에서 HUFs AWARD 해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미국 현지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가 이번에 학교를 방문해 HUFs AWARD를 수상한 것이다. Kevin S. Kim 행장은 글로벌 금융인으로서는 Bank of Hope를 오늘날 美 전역에 서비스망을 갖춘 한인 사회 대표 은행으로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부 등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기업인으로서 한국외대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드높인 공을 인정받아 HUFs AWARD를 수상하게 됐다.



2023년 한국외대 재외공관장 초청 간담회

3월 28일(화) 우리 대학은 외교부 전체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동문 재외공관장을 초청해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6층 벨류스위트룸에서 '2023 한국외대 재외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종진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박정운 총장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외교 최전선에서 애쓰는 동문 공관장들을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크고 작은 외교 성과에는 동문 공관장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던 것을 알기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現 주미 대사), 윤덕민 주일한국대사 등 20여 명의 동문 재외공관장과 박정운 총장, 양인집 총동문화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양인모 주한 크로아티아 명예총영사(독일어 59), 권오갑 HD현대 회장(포르투갈어 71) 등 주요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현동(스페인어 78) 동문, 외교부 주미 대사 취임

우리 대학 조현동(스페인어 78) 동문이 주미 대사에 취임했다. 조현동 대사는 주재국 동의를 거쳐인 아그레망(임명)을 역대 우리 정부 주미 대사 가운데 가장 짧은 일주일 만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2일(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수여받았다. 조현동 대사는 스페인어과 졸업 후 19회 외무고시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외교부 북미3과장, 주미대사관 공사, 북핵 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동문 출간



이덕환(철학 81)  
120세 자연건강관리법  
(책과나무)



## Donation List

### Donation & Alumni

한국의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명  | 구분   | 금액(원)       |
|-----|------|-------------|
| 강동희 | 17학번 | 40,000      |
| 강영남 | 93학번 | 40,000      |
| 강지혜 | 04학번 | 30,000      |
| 고경숙 | 01학번 | 30,000      |
| 고영무 | 93학번 | 150,000     |
| 고태수 | 07학번 | 40,000      |
| 고혜섭 | 11학번 | 90,000      |
| 고혜수 | 16학번 | 40,000      |
| 공병호 | 11학번 | 120,000     |
| 곽영근 | 17학번 | 40,000      |
| 곽태석 | 77학번 | 40,000      |
| 구민구 | 02학번 | 30,000      |
| 권서영 | 19학번 | 30,000      |
| 권성욱 | 79학번 | 40,000      |
| 권순한 | 66학번 | 30,000,000  |
| 권영아 | 91학번 | 40,000      |
| 권준호 | 93학번 | 120,000     |
| 김경민 | 01학번 | 120,000     |
| 김기수 | 87학번 | 40,000      |
| 김남규 | 18학번 | 40,000      |
| 김대윤 | 99학번 | 40,000      |
| 김대호 | 91학번 | 80,000      |
| 김대희 | 11학번 | 120,000     |
| 김도현 | 13학번 | 40,000      |
| 김도현 | 18학번 | 40,000      |
| 김미경 | 84학번 | 200,000     |
| 김미수 | 14학번 | 30,000      |
| 김민정 | 99학번 | 40,000      |
| 김민정 | 19학번 | 40,000      |
| 김민주 | 16학번 | 40,000      |
| 김범수 | 92학번 | 40,000      |
| 김병진 | 79학번 | 60,000      |
| 김보민 | 02학번 | 40,000      |
| 김상원 | 86학번 | 40,000      |
| 김선수 | 86학번 | 80,000      |
| 김선주 | 74학번 | 80,000      |
| 김세원 | 63학번 | 100,000,000 |
| 김승수 | 87학번 | 90,000      |
| 김승영 | 86학번 | 400,000     |
| 김용빈 | 89학번 | 30,000      |
| 김용정 | 95학번 | 207,500     |
| 김용진 | 89학번 | 120,000     |
| 김용현 | 89학번 | 80,000      |
| 김유정 | 03학번 | 40,000      |
| 김유현 | 10학번 | 120,000     |
| 김은정 | 94학번 | 30,000      |
| 김은정 | 93학번 | 40,000      |
| 김이선 | 16학번 | 40,000      |
| 김지영 | 11학번 | 120,000     |
| 김정기 | 80학번 | 3,000,000   |
| 김종윤 | 90학번 | 40,000      |
| 김종호 | 89학번 | 10,834,224  |
| 김주연 | 96학번 | 2,000,000   |
| 김주영 | 20학번 | 40,000      |
| 김준영 | 93학번 | 30,000      |
| 김지숙 | 15학번 | 40,000      |
| 김지은 | 04학번 | 30,000      |
| 김지한 | 04학번 | 40,000      |
| 김태림 | 20학번 | 40,000      |
| 김태우 | 17학번 | 30,000      |
| 김현수 | 16학번 | 30,000      |
| 김현신 | 99학번 | 30,000      |
| 김희재 | 96학번 | 40,000      |
| 나도연 | 83학번 | 50,000      |
| 나은예 | 08학번 | 40,000      |
| 남한솔 | 16학번 | 40,000      |
| 노건업 | 99학번 | 80,000      |
| 노일현 | 09학번 | 40,000      |
| 노지영 | 91학번 | 40,000      |
| 류동호 | 89학번 | 40,000      |
| 류재욱 | 95학번 | 40,000      |
| 류재봉 | 57학번 | 30,000      |

| 성명  | 구분   | 금액(원)       |
|-----|------|-------------|
| 문관식 | 08학번 | 90,000      |
| 문종혁 | 19학번 | 40,000      |
| 문환성 | 98학번 | 40,000      |
| 박관수 | 84학번 | 30,000,000  |
| 박가정 | 80학번 | 200,000     |
| 박남호 | 92학번 | 30,000      |
| 박미진 | 93학번 | 150,000     |
| 박상준 | 93학번 | 20,000      |
| 박신종 | 81학번 | 40,000      |
| 박상수 | 87학번 | 70,000      |
| 박성호 | 96학번 | 30,000      |
| 박순원 | 00학번 | 60,000      |
| 박용운 | 19학번 | 30,000      |
| 박용현 | 92학번 | 40,000      |
| 박원복 | 79학번 | 90,000      |
| 박은주 | 93학번 | 60,000      |
| 박재진 | 74학번 | 4,000,000   |
| 박재홍 | 14학번 | 40,000      |
| 박종성 | 14학번 | 30,000      |
| 박지영 | 99학번 | 40,000      |
| 배석주 | 90학번 | 80,000      |
| 배은경 | 02학번 | 40,000      |
| 백승연 | 12학번 | 40,000      |
| 백인구 | 92학번 | 40,000      |
| 부종환 | 71학번 | 40,000      |
| 상연진 | 02학번 | 80,000      |
| 사기원 | 81학번 | 40,000      |
| 서유경 | 92학번 | 120,000     |
| 손관주 | 18학번 | 30,000      |
| 손세준 | 05학번 | 30,000      |
| 송대현 | 86학번 | 80,000      |
| 송광영 | 14학번 | 30,000      |
| 송철준 | 74학번 | 40,000      |
| 송치민 | 93학번 | 30,000      |
| 송현우 | 15학번 | 80,000      |
| 송효섭 | 93학번 | 40,000      |
| 신민하 | 97학번 | 60,000      |
| 신아람 | 11학번 | 40,000      |
| 신연재 | 81학번 | 40,000      |
| 신용규 | 19학번 | 200,000     |
| 신윤경 | 08학번 | 40,000      |
| 신윤철 | 04학번 | 40,000      |
| 신인선 | 11학번 | 120,000     |
| 신정현 | 02학번 | 30,000      |
| 심찬  | 03학번 | 60,000      |
| 안상범 | 98학번 | 40,000      |
| 안우혁 | 19학번 | 20,000      |
| 안준상 | 92학번 | 30,000      |
| 양병욱 | 14학번 | 40,000      |
| 양연우 | 97학번 | 60,000      |
| 양한모 | 07학번 | 3,360,500   |
| 엄용길 | 02학번 | 40,000      |
| 여인기 | 18학번 | 40,000      |
| 엄철  | 88학번 | 200,000     |
| 오성식 | 79학번 | 200,000     |
| 오성진 | 04학번 | 40,000      |
| 오영민 | 96학번 | 80,000      |
| 오윤  | 03학번 | 30,000      |
| 오정훈 | 06학번 | 30,000      |
| 오주환 | 86학번 | 90,000      |
| 오창엽 | 85학번 | 40,000      |
| 우재만 | 71학번 | 80,000      |
| 유근혁 | 11학번 | 120,000     |
| 유인경 | 13학번 | 40,000      |
| 유시영 | 84학번 | 40,000      |
| 유영미 | 82학번 | 90,000      |
| 유은찬 | 20학번 | 40,000      |
| 유재형 | 96학번 | 40,000      |
| 유정은 | 05학번 | 30,000      |
| 유진규 | 11학번 | 40,000      |
| 윤산수 | 14학번 | 30,000      |
| 이덕선 | 58학번 | 260,621,662 |

| 성명  | 구분   | 금액(원)       |
|-----|------|-------------|
| 이동만 | 83학번 | 75,000      |
| 이동원 | 01학번 | 80,000      |
| 이동원 | 18학번 | 30,000      |
| 이동철 | 87학번 | 70,000      |
| 이미현 | 17학번 | 70,000      |
| 이사우 | 17학번 | 40,000      |
| 이상광 | 67학번 | 300,000     |
| 이상식 | 79학번 | 90,000      |
| 이서율 | 07학번 | 1,000,000   |
| 이성배 | 98학번 | 40,000      |
| 이성조 | 77학번 | 30,000      |
| 이수연 | 06학번 | 40,000      |
| 이승원 | 00학번 | 40,000      |
| 이승재 | 92학번 | 200,000     |
| 이승조 | 78학번 | 40,000      |
| 이연항 | 89학번 | 12,902,785  |
| 이영도 | 18학번 | 40,000      |
| 이영숙 | 60학번 | 27,604,658  |
| 이영우 | 68학번 | 5,000,000   |
| 이영화 | 68학번 | 30,000      |
| 이예지 | 16학번 | 40,000      |
| 이옥성 | 76학번 | 80,000      |
| 이용권 | 80학번 | 40,000      |
| 이용출 | 82학번 | 30,000      |
| 이유림 | 19학번 | 40,000      |
| 이은순 | 73학번 | 40,000      |
| 이정일 | 88학번 | 30,000      |
| 이재호 | 04학번 | 40,000      |
| 이재훈 | 88학번 | 90,000      |
| 이정보 | 15학번 | 40,000      |
| 이종섭 | 80학번 | 30,000      |
| 이준희 | 86학번 | 200,000     |
| 이지연 | 95학번 | 40,000      |
| 이택규 | 17학번 | 30,000      |
| 이하나 | 02학번 | 40,000      |
| 이현석 | 11학번 | 120,000     |
| 이혜영 | 91학번 | 40,000      |
| 이호경 | 91학번 | 30,000      |
| 이화람 | 96학번 | 40,000      |
| 이후인 | 21학번 | 30,000      |
| 이희라 | 97학번 | 40,000      |
| 이희섭 | 86학번 | 70,000      |
| 이희성 | 89학번 | 30,000      |
| 익영  | 17학번 | 1,000,000   |
| 임동무 | 61학번 | 30,000      |
| 임은숙 | 83학번 | 80,000      |
| 임재복 | 82학번 | 30,000      |
| 임정복 | 90학번 | 150,000     |
| 임창일 | 71학번 | 100,000,000 |
| 임형준 | 18학번 | 40,000      |
| 장삼환 | 87학번 | 30,000      |
| 장선호 | 18학번 | 40,000      |
| 장일범 | 87학번 | 40,000      |
| 장재혁 | 14학번 | 120,000     |
| 장지배 | 16학번 | 20,000      |
| 전금석 | 04학번 | 10,000      |
| 전혁민 | 11학번 | 90,000      |
| 전성철 | 76학번 | 150,000     |
| 전순자 | 91학번 | 30,000      |
| 정승화 | 99학번 | 30,000      |
| 정언용 | 91학번 | 40,000      |
| 정재민 | 81학번 | 200,000     |
| 정재현 | 88학번 | 300,000     |
| 정지훈 | 98학번 | 40,000      |
| 정휘영 | 98학번 | 40,000      |
| 정희중 | 10학번 | 40,000      |
| 정현수 | 97학번 | 40,000      |
| 조규태 | 72학번 | 200,000     |
| 조기석 | 02학번 | 240,000     |
| 조동식 | 69학번 | 40,000      |
| 조민기 | 91학번 | 30,000      |

| 성명                    | 구분   | 금액(원)      |
|-----------------------|------|------------|
| 조성욱                   | 87학번 | 200,000    |
| 조수연                   | 85학번 | 40,000     |
| 조용배                   | 85학번 | 30,000     |
| 조원규                   | 92학번 | 40,000     |
| 조인서                   | 17학번 | 40,000     |
| 조종수                   | 09학번 | 600,000    |
| 조다물                   | 10학번 | 30,000     |
| 주영림                   | 79학번 | 20,000,000 |
| 지연정                   | 99학번 | 30,000     |
| 차은수                   | 01학번 | 40,000     |
| 차한경                   | 15학번 | 30,000     |
| 채미혜                   | 98학번 | 40,000     |
| 천부기                   | 91학번 | 40,000     |
| 최근호                   | 87학번 | 40,000     |
| 최병천                   | 81학번 | 30,000     |
| 최봉실                   | 96학번 | 30,000     |
| 최수연                   | 15학번 | 30,000     |
| 최승엽                   | 16학번 | 40,000     |
| 최정규                   | 84학번 | 465,000    |
| 최은정                   | 92학번 | 300,000    |
| 최장호                   | 06학번 | 40,000     |
| 최준혁                   | 15학번 | 40,000     |
| 최태림                   | 90학번 | 90,000     |
| 최푸른하늘                 | 17학번 | 30,000     |
| 추가영                   | 04학번 | 40,000     |
| 탁경숙                   | 65학번 | 10,000,000 |
| 태현주                   | 18학번 | 30,000     |
| 하상림                   | 74학번 | 200,000    |
| 하석근                   | 95학번 | 30,000     |
| 하정수                   | 81학번 | 40,000     |
| 한나린                   | 18학번 | 40,000     |
| 한윤종                   | 77학번 | 150,000    |
| 한익섭                   | 05학번 | 120,000    |
| 한정연                   | 95학번 | 100,000    |
| 함승연                   | 18학번 | 40,000     |
| 함영준                   | 81학번 | 40,000     |
| 하완                    | 78학번 | 120,000    |
| 하욱                    | 94학번 | 30,000     |
| 한소영                   | 14학번 | 30,000     |
| 홍영표                   | 81학번 | 10,150,000 |
| 홍원기                   | 94학번 | 30,000     |
| 홍익표                   | 00학번 | 40,000     |
| 홍현주                   | 82학번 | 40,000     |
| 함광호                   | 05학번 | 1,650,000  |
| 함윤정                   | 04학번 | 30,000     |
| 함인자                   | 74학번 | 40,000     |
| 황지현                   | 86학번 | 60,000     |
| 황희재                   | 16학번 | 30,000     |
| Hanafy Shimaa Mohamed | 외대교수 | 60,000     |
| 가정준                   | 외대교수 | 300,000    |
| 고태진                   | 외대교수 | 196,500    |
| 곽세라                   | 외대교수 | 240,000    |
| 곽순례                   | 외대교수 | 90,000     |
| 권경애                   | 외대교수 | 500,000    |
| 권기수                   | 외대교수 | 120,000    |
| 권영우                   | 외대교수 | 200,000    |
| 권혁만                   | 외대교수 | 150,000    |
| 김경희                   | 외대교수 | 450,000    |
| 김민정                   | 명예교수 | 80,000     |
| 김복철                   | 명예교수 | 1,338,165  |
| 김상범                   | 명예교수 | 405,000    |
| 김상영                   | 명예교수 | 200,000    |
| 김원영                   | 명예교수 | 150,000    |
| 김원호                   | 명예교수 | 30,000     |
| 김우경                   | 명예교수 | 542,190    |
| 김정연                   | 명예교수 | 30,000     |
| 김진아                   | 명예교수 | 120,000    |
| 김찬원                   | 명예교수 | 70,000     |
| 김현식                   | 명예교수 | 30,000     |
| 김형래                   | 명예교수 | 120,000    |
| 김혜진                   | 명예교수 | 240,000    |
| 노명환                   | 명예교수 | 105,000    |

## Donation List

### Donation & Alumni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 성명            | 구분   | 금액(원)      |
|---------------|------|------------|
| 영희준           | 외대교수 | 200,000    |
| 문지희           | 외대교수 | 300,000    |
| 박경은           | 외대교수 | 400,000    |
| 박미정           | 외대교수 | 60,000     |
| 박재운           | 외대교수 | 3,000,000  |
| 박정운           | 외대교수 | 3,420,000  |
| 박종찬           | 외대교수 | 150,000    |
| 박치완           | 외대교수 | 150,000    |
| 박홍수           | 외대교수 | 300,000    |
| 방교영           | 외대교수 | 360,000    |
| 송민석           | 외대교수 | 60,000     |
| 송준서           | 외대교수 | 40,000     |
| 신근혜           | 외대교수 | 595,074    |
| 신정아           | 외대교수 | 750,000    |
| 안인경           | 외대교수 | 30,000     |
| 양재원           | 외대교수 | 30,000     |
| 여호규           | 외대교수 | 105,000    |
| 온대원           | 외대교수 | 400,000    |
| 유기환           | 외대교수 | 465,000    |
| 윤성우           | 외대교수 | 1,673,100  |
| 윤승영           | 외대교수 | 300,000    |
| 윤은경           | 외대교수 | 45,030,000 |
| 이근영           | 외대교수 | 105,000    |
| 이아아           | 외대교수 | 10,000,000 |
| 이보화           | 외대교수 | 450,000    |
| 이승래           | 외대교수 | 60,000     |
| 이윤석           | 외대교수 | 600,000    |
| 이윤희           | 외대교수 | 60,000     |
| 이은구           | 외대교수 | 30,000     |
| 이인섭           | 외대교수 | 30,000     |
| 이재욱           | 외대교수 | 900,000    |
| 이주연           | 외대교수 | 60,000     |
| 이진호           | 외대교수 | 120,000    |
| 이진아           | 외대교수 | 1,200,000  |
| 이창훈           | 외대교수 | 150,000    |
| 이훈호           | 외대교수 | 160,000    |
| 이태욱           | 외대교수 | 600,000    |
| 이향            | 외대교수 | 834,000    |
| 이현환           | 외대교수 | 150,000    |
| 익영            | 외대교수 | 930,000    |
| 임근동           | 외대교수 | 40,000     |
| 세아해암장학재단      | 외대교수 | 300,000    |
| 임소라           | 외대교수 | 937,500    |
| 외대교회 · 교직원신우회 | 외대교수 | 1,650,000  |
| 장봉익           | 외대교수 | 300,000    |
| 장은영           | 외대교수 | 60,000     |
| 장철자           | 외대교수 | 60,000     |
| 장혜연           | 외대교수 | 60,000     |
| 재성훈           | 외대교수 | 40,000     |
| 조희문           | 외대교수 | 450,000    |
| 최경수           | 외대교수 | 200,000    |
| 최요섭           | 외대교수 | 120,000    |
| 홍원익           | 외대교수 | 60,000     |
| 홍성민           | 외대교수 | 300,000    |
| 홍종영           | 외대교수 | 40,000     |
| 황성우           | 외대교수 | 40,000     |
| 황지연           | 외대교수 | 60,000     |
| 김우조           | 명예교수 | 80,000     |
| 허영호장학재단       | 명예교수 | 40,000     |
| 최재철           | 명예교수 | 40,000     |
| 방재적           | 명예교수 | 10,000,000 |
| 유정화           | 명예교수 | 90,000     |
| 강미리           | 명예교수 | 40,000     |
| (주)에스원        | 명예교수 | 70,000     |
| 김희중           | 명예교수 | 40,000     |
| 김원숙           | 명예교수 | 50,000     |
| 김혜정           | 명예교수 | 30,000     |
| 박영규           | 명예교수 | 60,000     |
| 세무사조성자사무소     | 명예교수 | 120,000    |
| 신선호           | 명예교수 | 30,000     |
| 오성석           | 명예교수 | 30,000     |
| 정용호           | 명예교수 | 150,000    |

| 성명               | 구분       | 금액(원)       |
|------------------|----------|-------------|
| 황승규              | 외대직원     | 400,000     |
| 단창균              | 학부모      | 200,000     |
| 유설자              | 학부모      | 60,000      |
| 김윤정              | 기타(개인)   | 700,000     |
| 김현수              | 기타(개인)   | 200,000     |
| 나무라티오컴파니 형길환     | 기타(개인)   | 150,000     |
| 민석기              | 기타(개인)   | 500,000     |
| 백창기              | 기타(개인)   | 5,000,000   |
| 유기삼              | 기타(개인)   | 1,500,000   |
| 최광희              | 기타(개인)   | 30,000      |
| 뉴욕동문회            | 동문단체     | 3,879,292   |
| 재동 경동문회          | 동문단체     | 3,360,500   |
| 재직동문교수회          | 동문단체     | 3,075,000   |
| 포르투갈어과 총동문회      | 동문단체     | 500,000     |
| 한국외대 ROTC 총동문회   | 동문단체     | 20,000,000  |
| 한국외대 사학과 동문회     | 동문단체     | 500,000     |
| 영미문학번역 전공교수 및 동문 | 교내단체     | 3,000,000   |
| 외대재직직장학회(사외)     | 교내단체     | 2,430,000   |
| 외대죽구부            | 교내단체     | 500,000     |
| 한국외대 여교수회(누리회)   | 교내단체     | 1,000,000   |
| 광주회관             | 외대사랑우원업소 | 400,000     |
| (사)아름다운공공체       | 기타(단체)   | 10,000,000  |
| (재)동화산업장학재단      | 기타(단체)   | 6,000,000   |
| (재)상심공공장학재단      | 기타(단체)   | 15,600,000  |
| (재)협성문화재단        | 기타(단체)   | 7,721,000   |
| (주)대일리조트         | 기타(단체)   | 3,000,000   |
| 강철은 장학재단         | 기타(단체)   | 6,520,000   |
| 노영순학부            | 기타(단체)   | 4,218,500   |
| 교문사회재단           | 기타(단체)   | 1,100,000   |
| 대순진리회 수석방면       | 기타(단체)   | 1,405,500   |
| 더화이트홀빌 김희준대표     | 기타(단체)   | 3,000,000   |
| 동원그룹리더십장학재단      | 기타(단체)   | 12,500,000  |
| 두산인재재단           | 기타(단체)   | 10,121,000  |
| 사단법인 한라비즈니스협의회   | 기타(단체)   | 2,000,000   |
| 사천소방서            | 기타(단체)   | 719,280     |
| 서울강동소방서          | 기타(단체)   | 1,408,200   |
| 서울송파소방서          | 기타(단체)   | 1,408,200   |
| 서울중로소방서          | 기타(단체)   | 1,408,200   |
| 서울종로소방서          | 기타(단체)   | 1,408,200   |
| 성남시장학회           | 기타(단체)   | 3,558,500   |
| 성북문화재단           | 기타(단체)   | 7,216,000   |
| 세이해임장학재단         | 기타(단체)   | 3,708,500   |
| 신라문인장학재단         | 기타(단체)   | 13,442,000  |
| 외대교회 · 교직원신우회    | 기타(단체)   | 2,000,000   |
| 용문장학회            | 기타(단체)   | 12,000,000  |
| 우덕재단             | 기타(단체)   | 12,563,000  |
| 의료법인 승인의료재단      | 기타(단체)   | 1,000,000   |
| 익명               | 기타(단체)   | 20,900,000  |
| 인천 강화소방서         | 기타(단체)   | 1,050,300   |
| 인천 송도소방서         | 기타(단체)   | 610,500     |
| 인촌기념회            | 기타(단체)   | 2,100,000   |
| 일주학술문화재단         | 기타(단체)   | 300,000     |
| 재단법인 인촌          | 기타(단체)   | 1,500,000   |
|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 기타(단체)   | 12,010,500  |
| 진천소방서            | 기타(단체)   | 760,500     |
| 청주서부소방서          | 기타(단체)   | 786,480     |
| 충남 해군 분부         | 기타(단체)   | 11,137,500  |
| 하림장학재단           | 기타(단체)   | 2,000,000   |
| 하영호장학재단          | 기타(단체)   | 6,000,000   |
| 한국지도자육성재단        | 기타(단체)   | 2,000,000   |
| 형애장학회            | 기타(단체)   | 15,462,500  |
| (주)지탈대성          | 기타(기업)   | 183,289,659 |
| (주)썬앤            | 기타(기업)   | 5,400,000   |
| (주)에스원           | 기타(기업)   | 12,700,000  |
| (주)이준시스템         | 기타(기업)   | 153,000     |
| 낙원세마을금고          | 기타(기업)   | 4,031,000   |
| 다웨이워드유           | 기타(기업)   | 1,500,000   |
| 메가스터디교육(주)       | 기타(기업)   | 486,652,190 |
| 메가스터디성지사무소       | 기타(기업)   | 1,000,000   |
| 캐피탈라             | 기타(기업)   | 10,000,000  |
| 하이토린로출원스 주식회사    | 기타(기업)   | 2,000,000   |
| 한국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부설기관     | 21,678,620  |



## 기부 혜택

외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기부자 예우

| 구분                              |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 기념품 제공                          | ○          | ○          | ○          | ○          | ○      | ○      | ○       |
| 학교 발간 홍보물 제공                    | ○          | ○          | ○          | ○          | ○      | ○      | ○       |
|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 ○          | ○          | ○          | ○          |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제공                     |            | ○          | ○          | ○          | ○      | ○      | ○       |
| 외국어 연수 평가원 수강료 본인 및 직계가족 30% 할인 |            | ○          | ○          | ○          | ○      | ○      | ○       |
| 감사패 증정                          |            |            | ○          | ○          | ○      | ○      | ○       |
|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            |            |            | ○          | ○      | ○      | ○       |
| 대천수련원 이용시 교직원에 준한 예우            |            |            |            | ○          | ○      | ○      | ○       |
| 출 명칭 동판 부착                      |            |            |            |            | ○      | ○      | ○       |
| 홍상 부조 부착                        |            |            |            |            |        |        | ○       |

### ●세제혜택

#### 1.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2.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만원)        | 세율(%) | 예금주                       |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 3.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문의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이메일) hufs5@hufs.ac.kr

# QS 세계대학평가 평판도 설문위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영국의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社(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는 전 세계 2,000여 개 대학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여 매년 6월 세계대학평가 결과로 1,000여 개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는 약 40여 개 대학이 본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과 우수 교원 확보 및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S 세계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는 대학 평판도, 교육여건, 연구성과, 국제화 지표가 있으며,

이 중 평판도 설문 결과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하여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합니다.

학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국내·외 대학을, 산업계평판도는 참여자의 업무 분야에서

채용을 선호하는 국내·외 대학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2024년 평가에 참여해 주실 설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설문 위원으로 등록하실 경우, 제출하신 이메일 주소로 2024년 1~2월 중에

QS에서 직접 대학 평판도 설문조사 링크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의 설문 참여 하나하나가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설문위원으로 등록하시어 소중한 의견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교육계 인사·교원 등)  
◆상시 등록 가능



산업계평판도 설문위원 등록  
(국내·외 산업계 인사·직장인 등)

◆문의 : 기획조정처 평가감사팀(02-2173-2027)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HUFS 119